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72호
2025년 05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6월 평의원 회의, 모교 주요 인사들 역대급 참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 제34차 평의원 회의에 대한 모교의 관심과 성원이 뜨겁다.

우선,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재욱 국제협력본부장, 김영오 공대 학장, 정종호 발전재단 부이사장(이사장은 유홍림 총장)까지 모교와 총동창회의 주요 보직 교수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낸다.

모교와 총동창회에서 오는 참가 인원도 역대급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국제협력본부에서는 김부열 부분부장과 신혜수 주무관, 발전재단에서는 이준환 상임이사, 박혜영 모금전략실장, 이미지 기부문화팀장, 박미수 미주재단 간사, 총동창회에서는 송우엽 사무총장 그리고 황원태 공대 국제교류위원장까지 모두 13명의 서울 손님이 오는 6월 세인트폴 평의원 회의를 방문한다.

모교에 대한 미주 동문들의 기부가 크게 늘면서 근래들어 총장과 발전재단 관계자들이 평의원 회의에 종종 참석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역대급 참여 인원에 공대의 학장과 국제교류위원장까지 참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인트폴 평의원 회의 개최를 진두지

총장 · 총동창회장 · 국제협력본부장 · 공대 학장
발전재단 부이사장 등 역대 최다 13명 나들이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 개최에 큰 관심
유홍림 총장, 이례적으로 첫날 워크숍도 참석

휘하고 있는 황효숙 제18대(차기) 회장은 이에 대해 “서울대와 미네소타 대학은 70년 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깊은 인연을 맺었다”며 “평의원 회의 첫날인 20일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워크숍을 하는데 모교와 미네소타 대학에서 워크숍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의 고등교육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미네소타 대학이 교육 원조 집행 기관으로 선정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서울대에 원조 자금 전액을 몰아 줬 서울대 발전의 기틀은 물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국가 성장의 초석이 된 프로젝트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7년 동안 의대, 공대, 농대, 수의대, 간

호대 등에서 총 226명의 교수진이 미네소타대에 머물며 선진 학문을 배웠고 미네소타대는 서울대에 자문 교수진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시설 복구와 기구·장비 등을 지원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워크숍 준비위원장 강경철(지구환경시스템공학 2004) 미네소타대 지구환경과학과 부교수는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이번 워크숍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기리는 자리만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정신을 계승, 확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문회를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효숙 차기회장이 보낸 평의원 회의 초대장.

유홍림 총장도 지난 2023년 서울대를 방문한 조엔 개불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협력과 교류를 통해 파트너십을 유지해나가는 것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유홍림 총장은 평의원 회의 첫날인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열리는 미네소타 프로젝트 워크숍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평의원 회의를 방문했던 모교 총장들이 대개 이틀째 열리는 환영 만찬에만 참석하는데 총장이 워크숍까지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미네소타 프로젝트 정신의 계승 방안 논의에 대한 그만큼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평의원 회의 둘째날인 21일에는 미네소타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하는 70주년 기념 축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미네소타 동문들, 미주 동문 손님 맞이 준비 한창

미네소타 지부 동문들이 오는 6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열리는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사대 65), 문성인 미네소타 지부 회장(공대 88), 박현아 미주동창회 차기 사무총장(공대 88), 강경철(공대 04), 이희운(농생대 84) 동문이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세인트폴 호텔에서 모여 행사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회의 후에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부스 설치 위치, 동선 파악 및 세부적인 운영사항들을 점검했다.

미네소타 지부 총무로 활동했던 이희운 동문이 18대 미주동창회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지속가능 발전기획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평의원 회의 준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동창회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이희운 동문은 미네소타대에서 엘라베 마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로 재직중인데 황효숙 차기 회장의 부탁에 평의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돕겠다고 불원천리 달려와 이날 모임에 직접 참석했다.

이희운 동문은 미주동창회의 장학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남가주 한홍택(공대 60) 동문, SNU 포럼을 이끌고 있는 시

평의원 회의 개최 세인트폴서 집행부 모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기조연설자로 참석



지난 3월 22일 평의원 회의가 열리는 세인트폴 호텔에 모여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미네소타 동문들. 왼쪽부터 이희운, 박현아, 황효숙, 강경철, 문성인 동문.

애틀의 김재훈(공대 72) 동문과도 연락해 지속가능한 동창회 방안 마련에 애쓰고 있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지난 4월 2일에는 서울에 계신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님, 이종식 서울대 문화예술원장과 줌미팅을 통해 워크숍 내용과 연사 구성에 대한 보다 논의를 진행했다”며 “신학철 부회장께서 기조연설자로 평의원 회의에 참석해주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팅에는 미네소타에 기반한 태양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 EVS의 창업자 겸 회장인 김권식(공대 61) 동문도 참석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황효숙 차기 회장은 “현업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후배들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돕겠다고 나서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평의원 회의가 정말 알차고 보람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미주 동문들을 초청한다”고 말했다.

■ 호텔 예약 방법

1. Visit the website at www.saintpaulhotel.com & click RESERVATIONS
2. Enter Check-in dates June 20, Check-out dates June 22, and No. of Guests. (June 19 ~ June 23일도 그룹 할인을 적용됨)
3. Drop down for Code Type and choose “Group/Block”
4. Enter the code number 3596904 in CODE. (코드넘버는 5/23까지 유효)
5. Click CHECK AVAILABILITY.
6. Choose a room type “Deluxe Rooms” and fill out the form and pay \$164.00 + tax.

■ 공항 교통편

세인트 폴 호텔은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 국제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있다. 호텔에서 셔틀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공항에서 각자 우버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문의: 황효숙 차기회장

(651) 308-0796/
sook@nano-dyne.com
백옥자 총무국장
(818) 395-1967

평의원 회의 만찬 음악회 연주자들

서울대 3대 총장 외손자 김영남 부녀의 ‘아빠하고 나하고’ 공연 기대



평의원 회의 만찬 연주자들. 왼쪽부터 가야금 주자 이수진, 첼리스트 Jacqueline Ultan, 판소리 이혜진, ‘아빠하고 나하고’를 협연할 애리애나 김과 아버지 김영남 연주자.

오는 6월 세인트폴 평의원 회의에서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만찬에 앞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20일 평의원 회의 축하 만찬 음악회는 서울대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음악교육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지에서 연주 활동과 함께 한국 음악 알리기에 앞장 서고 있는 이수진 동문 그리고 이 동문과 함께 자주 앙상블 연주를 하는 첼리스트 Jacqueline Ultan 이 연주자로 나선다.

가야금과 첼로 선율이 엮어내는 보사노바와 탱고에 한국의 전통민요 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특히 한국에서 주목받는 신예 판소리

바이올린과 가야금 협주곡으로 국제무대에서 호평 떠오르는 판소리꾼 김혜진 동문도 서울서 날아와

꾼 이혜진 동문이 서울에서 방문해 두 연주자와 협연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21일은 미네소타 프로젝트 70주년 기념 축하 만찬 음악회로 1946년 서울대학교 초대 사범대학장, 1948년 제3대 서울대학교 총장, 1960년 제4대 주미대사를 지낸 고 장이욱 총장의 외손자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인 김영남 연주자가 딸과 함께 꾸미는 ‘아빠하고 나하고’ 무대다.

딸인 애리애나 김(Ariana Kim)도 바이올리니스트로 코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안식년때 초빙 교수로 서울대에서 지내면서 가야금을 배우고 그 매력에 빠져 바이올린과 가야금을 위 한국인 ‘아빠하고 나하고’를 작곡했다.

애리애나 김은 “한국에 있는 동안 동요 ‘아빠하고 나하고’가 하도 좋고 정겨워서 이 노래를 바탕으로 아버지가 깊이 사랑하는 한국 정서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곡을 작

곡해 아버지께 헌정했다”면서 “코넬대에서 초연을 한 후 뉴욕, 미네소타, 이탈리아 시에나 페스티벌 그리고 지난 9월 워싱턴DC 스미소니안 뮤지엄에서 연주하면서 호평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협연으로 서울대 동문들께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김영남 연주자는 독주자로서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세인트폴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25개의 교향악단과 협연하고 탱글우드, 말보로 여름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최근 10년간은 아이다호 샌포인트 페스티벌 실내악과 현대음악 감독을 맡았고 미네소타대에서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동문 최고 영예 ‘관악대상’ 미주서 모두 9명 배출

1999년 제1회 수상자에 이병준 동문 선정
2008년엔 김은종 · 조장희 · 오홍조 3명 경사
“미주 동문들 적극 추천 통해 수상 늘려야”

노명호 동문이 최근 제27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 또는 단체를 시상하는 ‘관악대상’과 미주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해에 3~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관악 대상은 지난 1991년부터 모교가 시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과 달리 서울대총동창회가 시상하는 영예다. 특히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경우, 한국내 교수나 고위 공무원, 기업체 경영자에게 많이 수여되는 것에 비해서 관악대상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세계적인 업적이거나 동창회에 큰 공로가 있는 동문들에게 수여되고 있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회 관악대상은 지난 1999년 3명의 동문을 수상자로 시작했다. 미주에서 관악대상을 수상한 동문은 올해 수상한 노명호 동문을 포함해 총 9명이다. <표 참조>

역대 미주 동문들을 살펴보면, 1회 수상자로 이병준 동문이 선정됐다. 미주 동창회 발전의 주역이라는 점, 성공한 기업인의 한 표상이 참여부문 수상이다. 이어서 4회인 2002년에는 100만불 기금 위원회를 창설한 오인석 동문도 참여부문으로 수상했다. 2008년 8회 시상식에서는 총 4명중 미주 동문이 3명이나 차지하는 경사가 났다. 장학빌딩 건립에 적극 참여한 김은종 동문, 세계적인 과학자로 PET를 개발한 조장희 동문이 영광부문으로, 재미 한인사회에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제고한 오홍조

동문이 해외부문으로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009년 11회 수상자로는 이준행 동문이 해외부문에서, 2012년 14회 수상자로는 김경석 동문이 역시 해외부문에서 영예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23년 25회에서 하기환 동문, 올해 27회에서 노명호 동문이 수상했다.

미주 동창회의 한 관계자는 “미주에서 세계적인 업적이 있고 동창회와 후배 동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동문들이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수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동창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상자를 찾아내고 지역 동문회들이 너무 겸손해서 추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관악대상 수상행사는 대개 3월말에 열리는 서울대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올해는 노명호 제16대 미주동창회장장과 이윤경 간호대동창회 명예회장, 김덕길 한일협력위원회 한국위원,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이 영예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25회에서 수상한 하기환 동문은 부동산 비즈니스와 마켓사업(한남체인)의 성공과 더불어 적극적인 커뮤니티 봉사활동이 참작돼 수상했다. LA한인상공회소 회장, 미주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회장, LA한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 회장을 맡아 한인들의 미 정계 진출을 적극 도움으로써 한인사회 위상을 높였다. 또 1992년 4.29 LA폭동 당시 LA한인상의 회장으로 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을 차고 한인타운 지키기에 나섰던 것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수상년도	관악대상 역대 미주 수상자	부문
1회(1999년)	이병준 상대 55 / 미주동창회 명예회장	참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발전의 주역 성공한 기업인의 한 표상 	
4회(2002년)	오인석 반대 58 / 미주동창회 4대·5대 회장, 100만불 기금 위원장	참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 서울대 동창회회의 지속적인 발간으로 재미7천여 동문간의 유대강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한 '관악후원회' 창설에 산파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00만불 기금 위원회 창설 	
8회(2006년)	김은종 상대 59 /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참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 서울대 북가주 및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 장학빌딩 건립에 적극 참여 	
8회(2006년)	조장희 공대 60 / UCLA 방사선물리학과 교수,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장	영광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수 대학에서 CT와 관련 연구 세계적인 과학자 양전자 단층 촬영기 (PET)와 핵검출기 (BGO)를 세계 최초로 개발 뇌 과학과 신경과학에 관한 연구와 우수한 의료 영상기기로 지대한 공적 	
8회(2006년)	오홍조 치대 56 / 미주동창회 명예회장	해외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신적인 동창회 활동으로 재미한인사회에 모교와 동창회의 위상을 제고 제7대 재미서울대동창회 회장 재임시 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 	
11회(2009년)	이준행 공대 48 / 준이커머셜 회장,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 재미관악후원회 부회장	해외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과 재미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으로 총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헌신 2008년 제2회 재미 동문상 시상식에서 동문 참여 부문 수상함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0,000불을 출연해 미국에서 장학빌딩 건립 기금 조성에 기폭제 	
14회(2012년)	김경석 공대 70 / 브라운대 교수	해외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초 나노역학 연구 개척 서울공대, KIMM, KIST 등의 국내 나노역학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 교수로서 학부생들 교육에도 노력하여 실험 장치들을 고안함 	
25회(2023년)	하기환 공대 66 / 한남체인 회장, 제21차 세계한상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 성공한 재미 사업가로 평생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봉사 	
27회(2025년)	노명호 공대 61 / 리앤드로 워터 인프라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창회 활동과 리더십 모교 기여와 후배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지원 	

정리 = 장병희 편집위원

미주총동창회장 역임하며 리더십 발휘 ... 모교에 50만 달러 기부

노명호 전 회장 수상 소감

노명호 제16대 미주동창회장이 제27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3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악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노명호 전 회장의 수상 소감이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 혼자 노력의 아니라, 함께 해주신 모든 동문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104세의 장인어른 이종관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선생님은 경성제대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전신 시절부터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제게 큰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장장과 미주 총동창회장으로

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동문들의 화합을 도모한 일입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합창단 공연은 1,50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해준 임원진과 동문 여러분의 협력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동문들과 모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큰 영광이자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동문 여러분과 함께 서울대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적 모교 토목과 졸업 후,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리



3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관악대상 시상식에서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관악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희림 서울대 총장, 김덕길·노명호·이윤경·이경수 관악대상 수상자와 김종섭 총동창회장.

앤로(LEE+ROWater Infrastructure) 엔지니어링 회사를 창립해 40여 년 동안 운영했다. 남가주 공대 및 총동창회장, 미

주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고, 동창회 활성화와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장학금 100만 달러 기부 약정 ... 이제 20만불 채웠네요”

고광국 · 고국화 동문, 2차로 10만불 보내와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 SNUAA 스칼라스에 100만 달러 기부를 약정한 미시간 지부 고광국(공대 54) · 고국화(공대 56) 동문 부부가 지난해에 이어 2차로 10만 달러를 보내왔다. 고국화 동문은 지난해 2월 10만달러를 보내면서 2025년 10만달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동안 매해 20만달러를 보내 모두 100만달러 장학기금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모교에 장학금을 보내는 동문은 많지만 미주동창회 장학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거액을 기부하기로 한 것은 고광국 · 고국화 동문이 처음이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국화 동문은 1977년 크라이센 인더스트리란 회사를 창업해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에 수용성 오일인 절삭유와 C150 쿨런트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키웠다.

고국화 동문은 100만 달러 기부 약정을 하면서 “한번에 주고 싶었는데 IRA 은퇴연금계좌에서 택스 혜택을 받으며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부부 합산 1년에 최대 20만달러라고 해 2년은 10만달러씩 그리고 4년간 20만달러씩 보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국화 동문은 한국 첫 여성 공학박사로 1977년 크라이센 인더스트리란 회사를 창업해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에 수용성 오일인 절삭유와 C150 쿨런트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키웠다.



고국화(공대 56) · 고광국(공대 54) 동문 부부.

‘노래하는 치과의사’ 김성열 동문, 작곡가로 데뷔

워싱턴주 밴쿠버에 거주하는 치대 김성열 동문(67졸업)이 작곡한 피아노 곡이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된다.

작품 이름은 ‘동치미’.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임원들이 김성열 동문의 초대를 받아 김 동문의 자택에서 만찬을 하던 어느 날, 지휘자 살바도르 보튼이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김 동문이 작곡한 ‘동치미’ 악보를 보게 됐다. 그리고 김 동문의 노래를 들어 보더니 매우 신선하다며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1년 후 살바도르 보튼 지휘자는 김 동문의 곡이 다른 음악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멜로디라고 평가하며 편곡 악보를 보내왔고 오는 4월 밴쿠버 심포니의 ‘팬텀 오브 오페라’ 공연에 연주곡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김성열 동문과 부인 전후자씨. 부인은 서울대 동문이 아님에도 김 동문과 함께 서울대발전공로상을 받았다.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4월 공연서 김 동문이 작곡한 ‘동치미’ 편곡해 연주

집에 온 밴쿠버 심포니 지휘자가 곡 보고 “매우 신선” 편곡 제안 후 1년만에 무대에

“영광이지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동치미’ 연주 때 객석에 있는 김성열 동문을 작곡자로 소개한다.

김 동문은 지역 사회에서는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팬텀 오브 오페라’ 공연 중에 객석에서 일어나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하는 치과의사(Singing Dentist)’로 이미 유명하다.

“젊어서 정규 음악교육을 전공할 수 없었지만 늘 혼자 음악을 했고 이곳에 있는 클라크 칼리지 교수에게서 여러해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김 동문은 클라크 칼리지 치대 임상교수로 재임하면서 같은 대학의 음대 교수로부터 6년간 성악 레슨을 받아, 오페라 성악가로 참여할 정도의 실력자가 된 것이다.

이번 오페라에 올려지는 ‘동치미’의 가사는 서울 사대 동문인 동생 김종열씨의 시집에서 옮겨 왔다.

‘도옹동 살포시 떠오르려니... / 어머니 손길 따라 가려되라
도옹동 때갈도 고와서라.../한숫갈에 살포시 떠오르는

정감따라 바라보시던 어머니/ 그생각에 눈물 한방울 떨고 가는구나...’ (1절 일부)

노래하는 형제들

서울의 인왕산 밑 청운동. 젊은 시절 서울대 치대생 김성열 동문은 데이트 하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가족들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집에 도착하자 두 젊은 연인 앞에 늘 어선 김성열 동문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 경열이와 막내 읍이 남성 이종창을 부르며 형의 애인을 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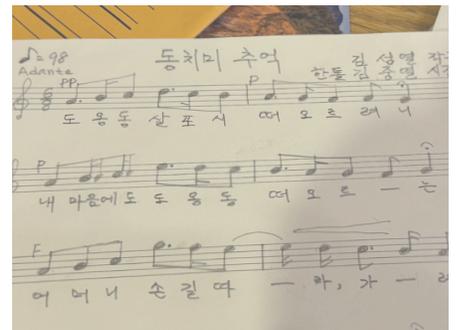
우렁찬 두 남자의 아름다운 노래에 김성열 동문의 여자친구 김후자씨는 감동했다. 여자 형제만 여섯이 함께 자란 김후자씨에게는 그날 남자형제들의 힘찬 노래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애는 평생의

축복으로 가슴에 남았다.

“어려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듣기를 좋아했고 악보를 구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면 가슴이 찌르르합니다. 늘 혼자 연습했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들려주려고 부르기는 혼자 즐기면서 힘이 납니다.”

김 동문은 아들이 치다가 깨져서 놓아둔 우크렐레를 혼자 연습하면서 ‘동치미’의 멜로디가 떠올랐고 동생 김종열씨의 시 ‘동치미’에 곡조를 엮으면서 악보가 완성됐다.

치과에서 시술 중에도 쉬는 시간이면 노래를 하고 환자가 신청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치과 환자들은 치료받으며 신청곡을 요청하고 김 동문은 치료 사이사이에 치료실을 아름다운 그의 목소리로 가득 채운다. 계절에 따라 크리스마스 캐롤도



김성열 동문이 작곡한 ‘동치미’ 악보.

불러주고, 한국에 있는 친구의 요청으로 한국 동창회에 가서도 그들의 요청곡을 불렀다.

미시간 주의 은사 부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곳으로 날아가서 ‘You Rased Me Up’ 노래로 마지막 길에 보답을 했다.

“노래하는 덴디스트 김 박사는 30년간 우리 환자들에게 노래를 들려주었고 우리가 즐겨 듣는 곡들은 프랭크 시나트라, 엘비스 프레슬리에서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안정시키고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치료를 받는 환자의 말이다.

재능으로 봉사하는 삶

김성열 박사는 치과 치료의 새로운 기구들을 개발하며 특허를 내 보급하는데 기여해 왔다. 서울대 모교에 1백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고, 밴쿠버 지역사회에도 지난 30여년간 다양한 단체에 꾸준한 기부와 지원을 이어 오면서 워싱턴주 지역사회의 큰 공로자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또 프로페셔널 스키 강사이기도 하고, 지역의 부부 댄싱 콘테스트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한 재능꾼이다.

이번에 그가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한국적 정서의 ‘동치미’ 곡을 올림으로써 ‘노래하는 치과의사 김성열’은 봉사자, 공로자로서 그리고 자랑스런 서울대 동문으로서 미국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글=김인종 고문(농대 74)

‘알로하’ 문화의 따뜻함과 순수함에 매료돼 새 삶 결심

벤자민 홍(문리대 54) 부부, 하와이에서 1년 살아보니

지난해 5월 남가주 어바인에서 호놀룰루로 이주한 벤자민 홍(정치학 54) 부부가 ‘하와이 1년 삶’을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홍 동문은 한미와 나라 은행 등 LA 한인커뮤니티의 주요 은행장을 지내며 한인사회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LA 폭동 당시 피해 한인들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줘 타운상권 복구에 앞장 섰다.

Aloha!

맑고 깨끗한 자연과 멋진 바람, 그리고 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따뜻함의 알로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와이를 동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계의 많은 은퇴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인 하와이. 미국의 50번째 주로, 8개의 주요 섬과 1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명한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호놀룰루도 이곳에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따뜻한 기후, 맑은 공기, ‘알로하 정신’이 깃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오아후는 하와이의 중심지로,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따뜻함과 일본 이민자들의 배려가 어우러져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는 한인 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곳으로,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을 중심으로 한인 상권과 주거 인프라도 점차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가주 어바인에서 살다가 1년 전,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알로하 문화의 따뜻함과 사람들의 순수함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소중하게 가꾸온 동백꽃 정원, 애정을 담아 마련한 집과 이별하고, 늘어난 짐을 정리하며 미니멀한 삶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으면 또 다른 것을 얻게 되는 법이죠. 하와이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적당한 습도 덕분에 남편의 비염은 며칠 만에 호전되었고, 캘리포니아 산불과 백신 후유증으로 5년 넘게 고생하던 저의 피부 알려지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좋은 식재료가 모이는 이곳에서, 더욱 건강하고 수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벤자민·비비안 홍 부부는 ‘사랑과 존중’의 알로하 문화에 매료돼 하와이 이주를 결심했다. 맑은 공기와 ‘멋진’ 바람, 그리고 깨끗한 자연은 덤이다.

다양한 민족 ‘피진 잉글리시’가 공용어 카하나모쿠 비치의 낭만적인 금요일 밤 온몸으로 맞는 멋진 바람은 행복감 줘 ‘라나이’에 앉아 태평양 바라보며 아침 식사

있다는 점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와이의 또 다른 특징은 언어입니다. 다양한 민족(폴리네시아인, 일본, 필리핀, 태국, 중국, 한국)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피진 잉글리시(Pidgin English)’라는 독특한 영어가 쓰입니다. ‘뽕뽕’거리는 영어를 구사하는 일 본인과 폴리네시아인들이 꽤 있기에 유창하지 않더라도 서로 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죠. 특히 일본계 인구가 많아 일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에게 언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40년 넘게 살아온 LA를 떠나 하와이에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

아내’였습니다. 그는 늘 ‘인생을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아내가 좋은 환경에서 계속 배움을 이어가며,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는 제 삶을 응원하는 진정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으며, 그것이 곧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가장 잘하는 요리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와이키키 해변 사이로 태양이 미광을 비출 때 우리는 눈을 뜹니다. 깨끗한 거리와 드높은 하늘, 그리고 무지개는 마치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목처럼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꿈같은

풍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매주 금요일 저녁,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앞 카하나모쿠 비치에서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가운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저희 부부도 20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저녁 7시 45분부터 8시까지 이어지는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이토록 낭만적인 금요일 밤을 매주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와이에서 사는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와이의 바람은 멋지고 강하면서도 잘생긴 바람입니다. 다이아몬드헤드에 올라 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때면, 자연의 향기와 에너지가 온몸에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희를 하와이로 이끈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랑하는 또 다른 장소는 Honolulu Museum of Art (HoMa)입니다. 18세기 유럽 예술부터 현대 동양 미술까지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고흐와 모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매번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몽환적인 꽃비가 내리는 특별 전시장에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님프가 되어 꽃들과 속삭이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와이에선 해가 떠오르면 해변을 거닐고, 사랑하는 사람과 라나이(하와이어로 ‘balcony’)에 앉아 태평양을 바라보며 아침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로컬 식재료와 저희만의 재료로 소박한 음식을 만들며,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하와이. 이곳에서 저희는 제3의 연령기를 꿈과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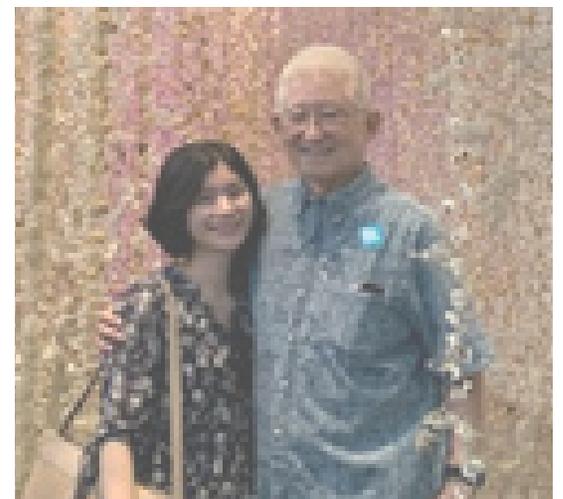
Mahalo!



아침에는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며 가볍게 식사를 한다.



지난 3월 1일에는 평화음악회 공연을 위해 하와이를 찾은 지휘자 금난새(음대 66, 오른쪽) 동문과 오찬을 함께했다.



호놀룰루 미술관의 아이콘 ‘꽃비’ 앞에서 포즈를 취한 벤자민·비비안 홍 부부.

흔들리는 달러 위상... 달러 패권 유지 여부가 관건

2025년 4월 SNU 포럼 초청 강사는 최운화(상대78) 전 유니티은행장이다. 최 동문은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경제 전문가로 커먼웰스비즈니스뱅크의 창립 행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투자 회사인 퀀텀 파이낸셜 그룹의 CEO로 일하고 있다. 투자 및 투자 자문 현업에 있는 최 동문의 경제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최운화
(상대 78)

최근 수 년간 팬데믹을 이기기 위한 각종 대응책은 지난 120년 동안의 자본주의 경제학을 총망라 했다고 해도 될 만큼 모든 이론이 총동원된 것이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떠올렸다. 1920년 말, 1930년대의 대공황 때는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져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대공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무장한 케인즈 학파가 나와서 대응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것의 총집결판이 바로 2020년 4월 연방 정부가 PPP라든지, 개인당 3천 달러씩 나눠준 조치였다.

그랬더니 2020년 5월부터 다시 소비가 회복을 해버렸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경기 침체로 기록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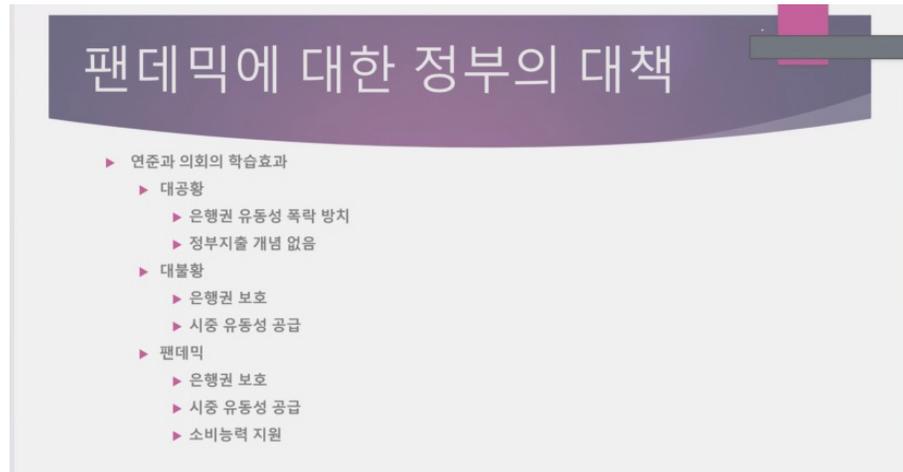
◆ 팬데믹때 미국정부의 역할

첫 번째 대공황 때는 은행권의 유동성이 무너지는데 방치를 했었다. 그랬더니 시중에 자금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 당시에는 정부가 나서서 지출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공황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 때문에 2008년, 2009년 때에는 은행권을 보호했다. 그런데 팬데믹 때는 은행권만 보호해 준 게 아니고 직접 소비자에게, 또 기업에게 돈을 줬다.

요즘 유행하는 MMT라는 이론이 있다. 모던 모네타리 씨어리(Modern Monetary Theory)라고 케인즈학파의 가장 최신 버전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 팬데믹에 따른 불황은 두 달 만에 끝나버렸다.

◆ 회복 후 현재 상황

팬데믹 이후의 지금 상황은 어떤가.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경제 성장률은 양호했고 고용도 좋았다.



250년 자유 무역 기조 바꾸려는 트럼프 정책 실패하면 글로벌 경기침체는 불가피 다른 나라들 관세 위협 굴복 여부에 달려

가장 우려됐던 인플레이션은 2024년 상반기에는 하락세에 들어갔고 2024년 하반기에는 하락의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보험세에 빠졌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3%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 통제선까지 왔다.

소비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GDP도 계속 2%에서 3%씩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서 연간 2%에서 3% 경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치의 성장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미국만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서 미국으로 자본이 많이 유입됐다. 덕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갔고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또 돈을 많이 번 것 같으니 소비가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정부도 자본 투자를 많이 시행했다. IRA법, 집 세트 같은 것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많아졌고 또 많은 소비가 일어났다. 고용을 일으켰다. 덕분에 미국이 팬데믹이 지난 후에도 가장 잘된 국가로 선정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다.

◆트럼프의 상황 파악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4년까지 미국 경제가 지표 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트럼프가 잘못돼 있다고 보는 미국 경제나 미국 상황에 부정적인 견해는 첫째, 미국 무역 적자가 심하다. 다음은 재정 적자가 크다. 또 정부가 비효율적

이다. 제조업 기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생산 기지가 중국 등 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미국의 경찰 국가 역할로 무임 승차한 국가들이 많아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 이것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미국이 잘못돼 있다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해결책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 관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또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많이 매기면 제조업자들이 미국에 와서 생산할 수 밖에 없고 또 미국에 있는 제조업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재정 적자도 관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를 효율화 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서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고 미국 기업과 투자가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민 정책으로 불법 체류자를 많이 쫓아내면 미국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친기업적 정책으로 기후 조약을 탈퇴하고 국제보건기구를 탈퇴한다. DEI 또 다양성이라든지 평등성, 포용성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효율화를 추구하면 기업들이 경영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를 중심으로 한 우방의 개념은 이제는 필요 없다. 미국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잘 맞는 국가라면 비록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정치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나빴던 나라라 할지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걸로 바꾸었다. 1950년 이전까지 미국 관세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때는 세계 경제가 자유 무역주의 흐름이 아니고 보호 무역주의가 강했던 성향이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IMF가 생기고 서로의 무역을 강조하고 확대하면 모든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자본 무역 기조에 들어갔던 것이다.

1950년 이후를 보면, 관세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런데 지금 평균 관세율이 29% 이상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관세율은 기록적으로 올랐고 상호 관세 90일간 유예했지만 한국도 25%, 베트남도 46%를 겪고 있다.

◆트럼프의 성공

단기적 성공을 하려면 미국 내 공장 이전을 가속화하고 유럽을 포함해서 안보 비용의 부담을 다 받아주면 성공할 수 있다. 당장은 시중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채를 누가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시중 금리가 인하하고 1년에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정부에서 이자로 갚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비용도 감소한다.

모기지 시장이 워낙 금리가 높아서 주택 거래도 잘 안 되고 모기지 지원도 되지 않는데 이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달러 약세가 오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관세에 있어서 보복 관세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잘해보자고 상황이 끝날 수 있다. 보복 관세가 오면 인플레이션이 재연되고 환율 전쟁이 발생하면 경기가 둔화되면서 무역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 미국 제조업이 부활에 성공하는데 인력난이나 인프라 스트럭처 문제로 제조업 부활이 어려워지고 무역 전쟁으로 미국 시장과 국제시장이 죽어버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그동안 미국을 이용했다. 잘못했다” 와 같이 아주 순응으로 받아들이면 장기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이제 제조업이 부활하고 고용이 늘고 기후 정책 폐지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일시적 경기 하락으로 인해 장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부담이 적고 국제 안보 비용 감소로 재정 적자가 감소하면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다.

“난 쓰죽회 회원 … 좋은 일에 남김 없이 쓰고 죽자!”

임낙균(약대 64·사진) 동문이 여러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그의 올바른 믿음과 실행력 때문이다. 다름 아닌 ‘선행의 선순환론’이다.

임 동문 스스로 능력이 돼 남을 도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돈을 많이 벌어도 앞날 걱정,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 바쁘게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돈 보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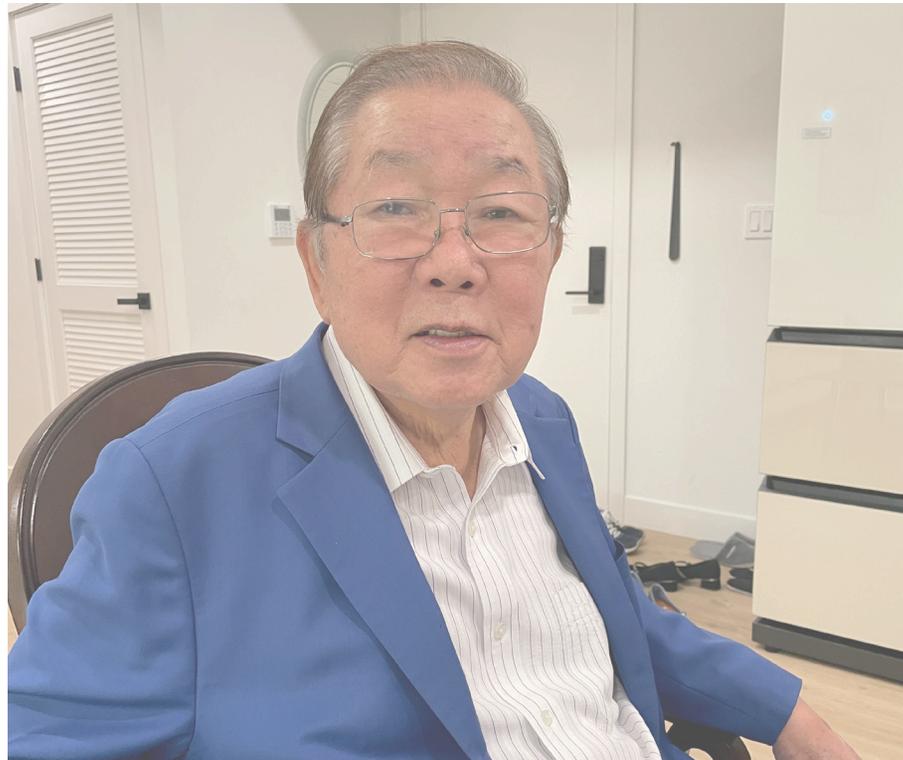
미국에 살다 보면 눈길을 끄는 뉴스로, 패스트푸드나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주인공이 “내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내 돈으로 미리 대접하겠다”며 목돈을 내고 떠나는 에피소드를 접할 수 있다. 그날 그 돈을 낸 사람은 아주 기쁜 일이 있어서 자신의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임 동문이 생각하는 ‘선행의 선순환’은 조금 결이 다르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도우라는 것이 요체다.

‘기브앤드테이크’가 아닌 ‘기브앤드기브’를 지향한다. ‘물지도 따지지도 않는’ 도움은 선의에 의한 것이고 선순환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하다. 언뜻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선행’이라는 방향이 있다.

이런 미담의 시작은 임 동문이 초등학교 6학년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임 동문에게 무료 과외선생님을 자처했던 담임 교사의 가르침 덕분이다. 담임 교사는 임 동문에게 “애야,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게 되

임낙균(약대 64) 동문의 ‘선행의 선순환’



“내게 되갚지 말고 남에게 도움 주면 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 가르침 새겨 한국 어린이 미국 초청, 모교엔 매년 후원금

갚을 생각을 하지 마라. 훗날 내가 성공하면 남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면 된다”라며 그에게 선행의 선순환을 온몸으로 가르쳤던 것이다.

그럼 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실현됐을까.

“너는 해낼 수 있다”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준 선생님의 인연은 임 동문이 이후 서울대 입학, 미국 유학, 비즈니스 성공 등 성공 가도를 달리며 오늘날에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자산으로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전라남도의 다문화 가정 6학년생 20여 명을 초청해 미국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바스토우 인근에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집을 사들여 학생들이 숙식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산은 총 20만 달러였다. 아마도 20여 명의 학생 중 대부분은 임 동문의 ‘선행의 선순환론’을 평생 몸으로 실천할 것이다.

임 동문의 선행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왔다. 그만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대에 매년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대 약대에 장학금 후원, 미주 동창회에도 매년 1만 달러 씩 후원하고 있다. 특히 미주 동창회는 확실한 쓰임새가 있다. 종신 이사회비를 내면 동창회 정관상 1/3만 동창회 운영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2/3는 적립금인 센추리펀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집행부 살림살이는 항상 힘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 동문은 종신이사회가 아닌 ‘일반 후원금’을 고집하고 있다.

임 동문은 자신을 또한 ‘쓰죽회’의 열성 회원이라고 소개한다. ‘쓰’고 ‘죽’자는 모임이란 뜻이다. 남가주 여러 곳에 약국을 운영하고 적절한 투자로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일궈냈다. 그의 ‘쓰자’는 자신의 부를 의미 있는 곳에 의미 있게 쓰자는 얘기다. 모아 놓고 나중에 별의미 없이 남겨놓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다. ‘선행의 선순환’과 이어진다. 심지어 옆집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에게도 딱 하나만 남겨주고 모두 의미 있는 좋은 곳에 쓸 계획이다.

임 동문은 자식 농사에도 성공적이어서 딸이 약사이고 사위도 약사다. 최근 타계한 부인 임경렬 여사도 약사였다.

장병희 편집위원

◆트럼프의 실패

반면에 다른 나라들이 다른 블록을 형성하거나 미국을 빼고 모이면 다른 나라들도 경기가 어려워지지만 미국도 심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달러의 기축 통화 위상의 하락이다. 세계 경제, 세계 무역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아주 좋았을 때는 80%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55% 정도로 내려왔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기축 통화 위상이 더 격하돼 버리면 달러 이외의 돈으로 무역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가장 큰 비중이 달러다. 60% 정도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 대한 고립 정책을 쓰면 달러를 갖고 있고 싶지 않게 된다.

엔화나 위안화, 아니면 금을 더 많이 갖고 있게 된다. 그러면 달러화가 갖

고 있는 기축 통화로서의 힘이 떨어지게 되며, 미국의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기축 통화가 힘을 잃게 되면 미국 중심의 국제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데 그러면 자유 무역 기조가 사라지고 서로 간의 보호 무역 기조가 오게 될 경우 다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트럼프 정책

관세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트럼프의 의견이다.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미국은 생산업에서의 부가 가치보다는 IP(지적 재산권) 같은 부가 가치의 창출력이 높다. 저부가가치의 생산업쪽 모델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의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진다.

현재 주식 시장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채권 시장은 훨씬 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하다. 채

권 시장은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인데 불과 한 달 반 전만 해도 3.1%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4%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39%, 4.4%까지 올라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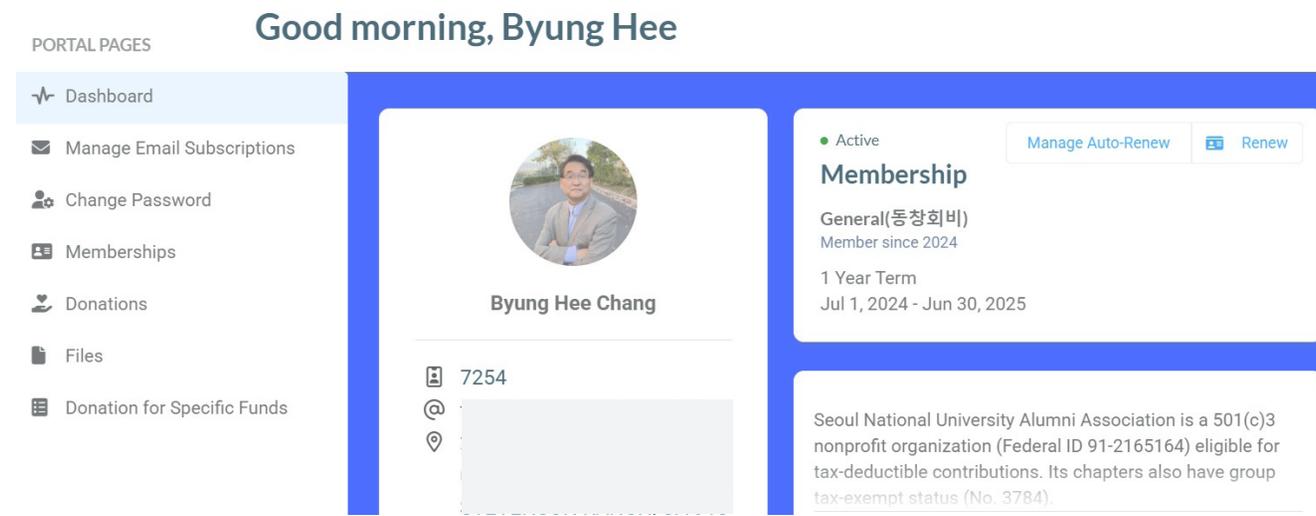
달러의 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의 지표 자체도 108에서 102까지 떨어졌지만 그중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게 엔화에서의 하락이다. 엔화가 150원을 넘어서서 거의 160원을 공격하는 것이 불과 한 4개월, 5개월 전까지였는데 지금 143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달러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다.

미국은 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태생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다른 나라에 풀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뤄지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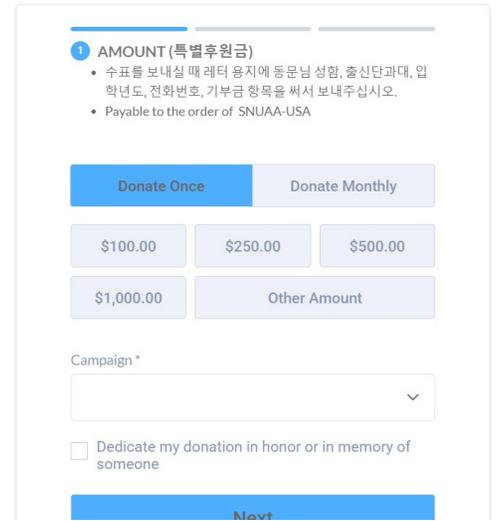
그래서 대한민국도 1960년대 70년대 개발 시도에 어마어마한 대미 무역 흑

자를 내면서 들어온 달러를 갖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 경제국까지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마셜 플랜이라고 미국이 600억 달러를 유럽에 줬다.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는 서로 교환하고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하자고 하는 기조였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세미나가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갖고 세계 경제를 논하게 된 것은 트럼프가 거의 250년을 유지해 온 자유 무역 기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운명, 중국, 일본, 유럽의 모든 선진 국가들의 경제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리=장병희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대시보드 화면.



특별후원금(Donation for Specific Funds) 화면

미주 동창회 온라인 DB 이용해 보셨나요?

제 17대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임기 내내 역점을 두고 개발한 ‘미주 서울대 동문을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가칭 스누시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시스템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 가입은 물론, 자신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고 온라인으로 연회비와 종신이사 회비, 기부금 등을 처리할 수 있어 이미 몇 동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연회비를 납부하기도 했다.

시스템을 채택하고 시범 운용 등을 주도한 나용화(생과대 79) 동문이 스누시스를 통해 처음으로 종신이사에 가입했고 UCLA석좌교수인 한홍택 동문은 첫 번째 연회비 납부자가 됐다.

시스템은 동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기존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가입과 동시에 기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중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중복자 병합시스템이 채택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과 함께 마주하게 되는 대시보드(dashboard)은 좌우 칼럼으로 나뉘어 있어서 왼쪽 칼럼에는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아래는 회원 번호,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가 있다. 바로 아래엔 프로필과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다. 오른쪽 칼럼에는 (미주) 동창회비에 대한 정보가 보인다. 오른쪽 위에는 연간 정기 결제가 가능한 버튼과 리뉴 버튼이 마

본인 정보 쉽게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어 연회비 납부, 동창회보 구독도 선택 가능 각 지부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련돼 있다. 바로 아래는 미주동창회의 비영리단체 정보가 소개돼 있고 아래는 기부 박스와 정기 기부되는 현황 정보가 보인다.

왼쪽의 두번째 메뉴인 ‘이메일 관리(Manage Email Subscriptions)’를 누르면 이메일의 수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3번째 메뉴는 패스워드 수정, 4번째 메뉴(Memberships)는 동창회비 납부 현황과 리뉴 버튼, 상세 현황 pdf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 정기 결제 버튼이 준비돼 있다. 5번째 메뉴는 기부(donations), 6번째는 파일, 7번째는 특별후원금 메뉴다.

대시보드 왼쪽 칼럼에 있는 프로필 수정(Edit Profile) 메뉴를 눌러보면 사진 업로드 및 변경이 가능하고 이메일 주소, 셀폰 번호 수정이 가능하며 이메일 뉴스레터와 종이동창회보 구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체크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이메일이 오거나 종이신문이 배달된다. 다만 이곳 체크는 정기적인 이메일 알림에 한한다. 바로 아래는 종이신문이 배달될 집주소를 적어야 한다. 아래는 개인정보 동의 박스(Data Privacy & Consent)로 이메일 수신, 전화 수신, 텍스트 수신 여부와 텍스트 수신이 좋

은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이곳에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서 미주 동창회 및 각 지부 집행부에서 발송하는 특별 이메일이나 텍스트 등을 계속 수신할 수 있다.

아래 Next를 누르면 소속 정보를 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있다. 우선 입학 당시 단과대학을 스크롤 메뉴(오른쪽 끝V를 누르면)에서 고를 수 있고 입학 연도는 기입해야 하며 아래는 현재 소속돼 있거나 소속을 원하는 지부를 역시 스크롤 메뉴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을 마치면 아래에 있는 서밋(submit)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된다. 경우에 따라서 의도되지 않은 수정을 막기 위해서 간단한 리캡차(이미지 고르기) 화면이 나올 수 있다. 이를 확인해주면 수정이 완료됐고 첫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버튼이 나온다.

스누시스를 주도한 나용화 미주동창회 IT국장은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정리하는 일을 이제는 회원 본인이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완결되면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 동창회 최고의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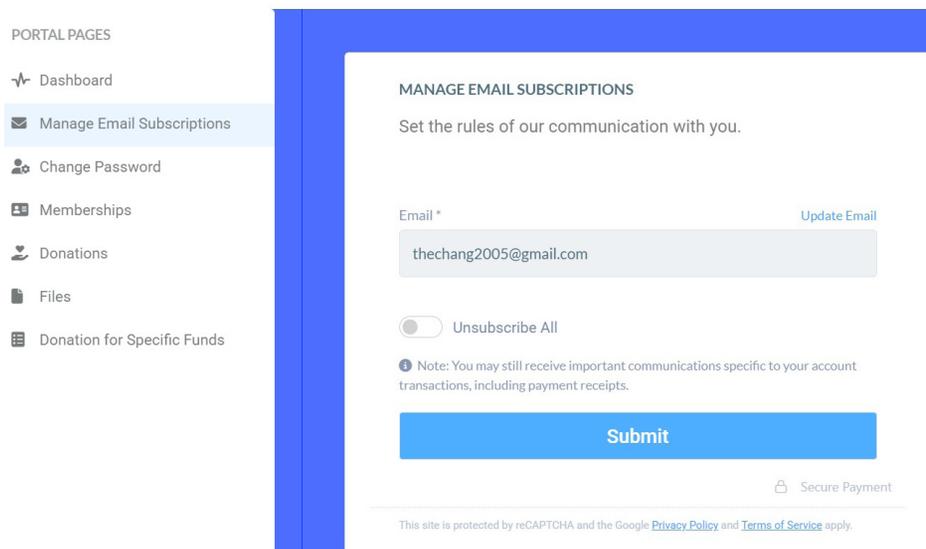
나 국장은 우선 미주 동창회 레벨로 운

영되겠지만 18대 동창회가 시작되는 7월 이전이라도 각 지부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첫째, 지부별 회비 수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각 지부 임원들에 의해서 대면 전달이나 벤모 등을 이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부별 알림을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가능해진다. 현재도 카톡 단톡방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무료 카톡이용자들에게는 사용상 어려움이 있고 카톡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지부는 물론 전체 동창회 회원 간의 의사소통이 훨씬 용이해진다.

나 국장은 또한 “초기 세팅부터 주거지 이사로 인한 이중 주소 문제는 USPS시스템으로 해결했다”며 “최근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도 수정했다. 동문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 연결’로 해결했는데 이런 맞춤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 중에 인재가 많아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스템을 채택해 구축했다. 시간은 많이 썼지만 매우 훌륭한 시스템”이라며 “이제 각 지부와 동문들이 잘 활용해서 동창회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스누시스에 접속하려면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www.snuua.org에 최상위 메뉴에서 membership탭을 선택한 후 ‘Member Businesses’를 클릭하면 메뉴 화면이 나온다. **장병희 편집위원**



이메일관리 화면. 이메일 수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Membership 화면. 온라인을 통해 연회비 납부가 가능하다.

“좋은 번역 위한 지침서 역할 확신해요” 이원택(의대 65) 동문, 4번째 영한 사전 출간

이원택 동문(의대 65)이 4번째 사전을 최근에 출간했다. ‘미-한 변형 사전’, ‘미-한 원형 사전’, ‘영-한 신세대 사전’에 이어 4번째 출판이면서 마지막 사전 출간이라고 밝혔다.

이 동문은 “사전을 만드는 것이 10여 명의 인원이 나서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혼자 작업했다”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웠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대성한 사전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전에 출간한 사전들은 각각 특색이 있었는데 출간하고 보니 아쉬운 점이 있고 빠진 것도 있어서 집대성 성격으로 보완과 종합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대략 10년을 작업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년은 두문불출하고 사전을 만드는 작업만했으며 그 과정에서 개업을 중단하고 2023년에는 은퇴했다.

정신과 의사가 ‘영어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영한 사전을 출간했다고 한국에서는 화제가 됐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간단한 글쓰기에서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글쓰기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사전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동문은 원래 소설가를 꿈꾸며 글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 탓에 개업하고 생계에 나서다 보니 펜을 들지 못하다가 환갑이 되어서야 수필, 시를 쓸 수 있었다. 그리고 한글 작품을 영어로 바꾸고 싶어서 번역에 손을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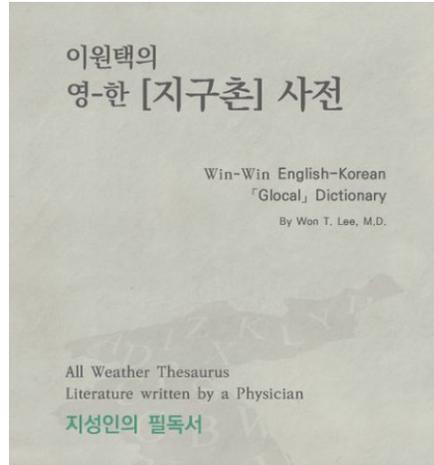
“이제 생각해보면 욕심이었죠.” 번역을 시작하고 보니 그 또한 쉽지가 않았다. 번역 과정에서 사전을 뒤져봤는데 사전들이 불충분했던 것. 이 동문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번역자들을 위해서 사전을 하나 써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영어 사전이지만 세상 만물을 반영해야 하다 보니, 인문학보다는 잡학사전, 심지어는 백과사전에 가깝게 됐다.



이원택 동문(왼쪽)이 쓴 영-한 지구촌 사전 책 표지.



다른 사전들이 취급하지 않은 것을 다뤘다. 언어학을 전공한 학자들보다 폭을 넓혔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사전에 나오는 말이 많이 달라요.”

그는 “문외한이 만들다보니 학자와는 다른 평민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사전이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사전 출간은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이 동문은 설명했다. 사전 하나 쓰는 것으로 만족하고 순수 창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신체적으로 특히 시력이 예전같지 않아서 새로운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시력과 자료 부족만큼 주위에서 격려 대신 낙담시키는 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요즘 누가 종이사전을 쓰냐며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동문의 생각은 다르다. 전자 사전은 찾기 쉽고 해결이 간단하지만 단편적이어서 학습 효과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비해서 종이사전은 두고두고 읽을 수 있고 대뇌에 각인돼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간단히 말해서, 학습력이 높다는 것. 예전에 영한 콘사이스 사전을 씹어 먹던 것도 비슷한 암기법이었다고 덧붙였다. 전자사전은 공부하는데 있어서 종이사전을 못

따라온다는 것이다.

한편, 사전에는 콩글리시에 대한 지적도 많다. 영어 30~40%가 한국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데 특히 부적절한 콩글리시는 비웃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안쓰면 좋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쓰면 좋다는 것. 사전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어를 세상에 더 알리려고 굉장히 많이 넣었다. 한국 속담 등 보편적으로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외에도 불규칙 동사·명사표,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 미국인의 ‘타고난 이름’, 세계의 언어, 한국식 영어, 전산망 약자, 법정 용어, 미국의 사증 등 영어 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식을 수록했다.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6100만 명이 쓰는 스페인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 스페인어’도 특별부록으로 실었다.

이 동문은 1971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1975년 인턴 과정 거쳐 정신과 및 노인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1980년부터 남가주 롱비치에 개업했다.

이 동문의 사전은 LA반디서점(정건수 동문 운영)에서 40달러에 구할 수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남가주 이남 동문 ‘봉준호 영화들’ 출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 채프먼대 영화학과 이남(국문학과 79) 교수가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봉준호에 대한 학술서 ‘봉준호 영화들’을 출간했다.

이남 동문은 지난 2011년 채프먼대에 한국 영화제를 만들면서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한 이래 다년간의 작업을 통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분석하고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책에서는 2020년 미국 영화 산업의 본산인 할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총 4개의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기생충’을 비롯해 봉 감독이 만든 영화 8편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물론 봉 감독의 창작 과정과 영화 안팎에 대한 흥미롭고 세세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은 봉준호 영화에 대한 첫 학술서로 2020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고 이번에 봉 감독의 최신작 ‘미키 17’까지 담아 한국어로 개정 출간됐다. 반디북US(www.bandibookus.com)에서 50% 할인된 25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 큰 족적 ... 이영일 동문(문리대 53) 별세

“미주동창회보 잘 만들어달라” 1만불도 후원

남가주 한인커뮤니티의 올드타이머인 이영일(문리대 정치학 53·사진) 동문이 노환으로 지난 3월말 타계했다.

고인의 미망인 이우림 여사는 장례식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렀다고 밝혔다.

고인과 대학시절부터 친교를 쌓아왔던 이채진(정치학 55, 전 클레어몬트 대학 석좌교수) 동문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배님의 초지일관된 신념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모했다. 김상찬 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도 “문리대의 맑

형님이었고 한인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였다”고 고인의 타계를 애도했다.

1961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고인은 노터데임 대학원에서 수학한데 이어 우드베리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 197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LA 코리아타운에 개업한 한인 최초의 CPA였다.

이어 1983년 남가주 한인 CPA협회를 창설한 그는 초대회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한인회 이사, 한인청소년후원회 회장, 월서 로타리 클럽 회장 등을 지내



한인사회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LA폭동 때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한인신용협동조합(크레딧 유니온)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동문은 “폭동 때 경제적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한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용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크레딧 유니언

창설 동기를 설명했다.

크레딧 유니온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렵고, 영어와 미국생활에 익숙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1995년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한인타운에 한인신용협동조합(Hanin Federal Credit Union)을 설립했다. 이 동문은 이사장과 행정 등을 두루 역임하며 폭동 이후 한인들의 재정적 안정을 도왔다. 한편 고인은 미주동창회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24년 2월 1만 달러를 선뜻 기부, 동문 커뮤니티에 큰 울림을 줬다.

경찰이 쏜 총에 아들을 잃고 1년 ... 남가주 양민 동문이 보내는 편지

“지치고 고통스럽지만 전 포기할 수 없습니다”

DMH의 직무유기

DMH는 현장에 도착한 1시간 3분 동안, 아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료적 개입은 없었고, 불안한 환자가 있는 공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진입을 시도해 오히려 환자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가라” 고 소리치고 몸짓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이를 “폭력적이다” 고 단정하며 LAPD에 911 신고를 한 것이 이 끔찍한 결과의 시작이었습니다.

LAPD의 과잉 무력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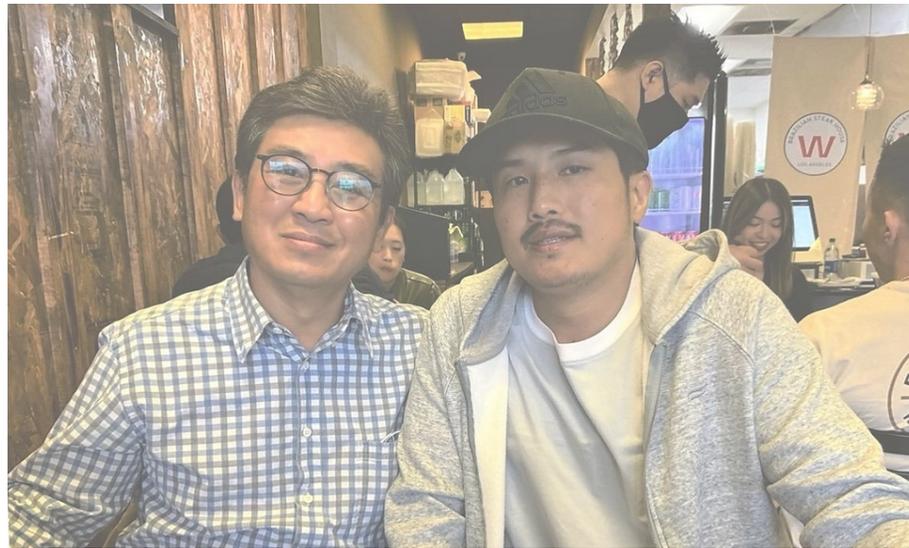
LAPD는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여 총 47분을 머물렀지만, 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두 차례, 총 1분 20여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설득도, 비폭력적인 중재도 시도하지 않았고, 작전 수행을 지휘한 Sergeant Araceli Ruvalcaba는 진급 후 첫 현장 지휘라는 상황 속에서도 상관의 조언 없이, 무력 진입을 즉각 지시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Officer Andres Lopez는 이미 2021년에도 유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리한 대응으로 Officer-Involved Shooting (OIS)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처벌 없이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단 6초 만에 진입했고, 진입 후 단 8초 만에 3발의 총알을 발사해 용이의 심장, 폐, 척추, 위, 췌장, 간, 장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며 확실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LAPD가 부른 응급 구조대는 전문 Emergency Medical Service가 아닌 일반 소방관들이었고, 그마저도 총격 발생 8분 30초 후에나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적 응급조치는 전무했고, 생명은 방치된 채, 오직 작전 수행의 통제만이 우선되었습니다.

헌법과 현실의 괴리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모든 시민이 불



양민 동문이 경찰 총격에 숨진 아들 양용씨(오른쪽)와 함께 했던 생전 모습.

정신 불안 아들 위해 건강국 직원 불렀는데 병원 데려가는 대신 경찰에 “폭력적” 신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 진입 8초만에 3발 총격 무관심과 편견 속에 진실과 정의는 사라져

합리한 수색과 체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 중 약 3분의 1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시민을 무력화하고, 사법체계는 이를 정당방위로 간주하며 거의 기소하지 않습니다.

특히 LAPD는 OECD 국가 중 민간 살상

률 1위, 경찰의 치사율 최고 수준, 기소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를 헌법이 보장하고, 시민들도 경찰을 만나면 무서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시되는 미국 사회에서, 경찰은 시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통제를 우선하는 구조에 깊숙이 안주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어진 싸움

아들 용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 미국과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최소 1회 이상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용이의 죽음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동문들과 한인 사회가 중심이 된 시민 모임 JYYPC (Justice for Yong Yang), 기자이경원리더쉽센터, 젊은 NPO 활동가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LA 시의원 Hugo Soto-Martinez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었고, 함께 집회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앞 시위, LA 시청 광장 집회, 지역 언론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지난 9월 이후 저희 가족은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관심, 편견, 이중의 고통

이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저희는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한인 단체들조차도 이 사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런 일이 워낙 많아서”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겠지” “오죽했으면 경찰이 그랬겠어”

심지어는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겠지”, “잘 죽었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건 그 자체로 충분히 고통스러웠던 가족에게, 이런 사회적 무감각과 냉소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 앞에 공감과 질문이 사라지고, 책임과 성찰 대신 침묵과 판단만 남아 있는 이 구조적 현실이, 저희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가려진 진실

2025년 4월 19일,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아들 용이의 사망 1주기(5월 2일)를 2주 앞둔 시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책임은 철저히 회피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LAPD에 대해 경찰관 전원의 바디캠 전체 영상 공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LAPD는 이에 응하기는커녕, 3주에 걸쳐 단 6개의 바디캠 영상만을 찢끔찢끔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사건의 진상 파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장면들만 골라 편집하거나 발췌한 영상들 뿐이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LA Police Commission 회의에서의 결정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작전을 지휘한 Sergeant Ruvalcaba에게는 징계는 커녕 다음과 같은 공식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The Board acknowledged Sergeant Ruvalcaba was thoughtful, immensely patient, flexible and awaited all necessary resources prior to opening the apartment door.”

용이를 사살한 Officer Lopez에게는 총기 사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UOFRB determined, and I concur, an officer with similar training and experience as Officer Lopez would reasonably believe the situation had escalated to where deadly force may be justified... Therefore, I find Officer Lopez’ Use of Lethal Force to be In Policy, No Further Action.”

이것이 저희 가족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찬사를 받으며, 구조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아들의 죽음은 통제로 치부되고, 정의는 조직의 회의록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허점을 알리고, 진실을 기록하며,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그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정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대와 행동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간절한 호소를 함께 전합니다. justiceforyongyang.com에 꼭 들려주세요.



지난해 5월 남가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양용씨의 죽음을 추모하고 경찰 총격에 대한 공정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에는 동문들도 많이 참여했다.

달에 한국 시조 보낸 세종문화회 세종작문경연대회 수상자 발표

미주서 1328명 응모, 총 29명 선정

시카고 지역 동문들이 주축이 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세종문화회(회장 박계영)가 올해로 20회를 맞은 세종작문경연대회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 40개 주에서 시조 부문에 1202명, 수필 부문에 126명 등 모두 1328명이 응모해 이중 15명의 시조부문 수상자와 14명의 수필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총 9950달러의 상금을 전달했다.

세종문화회는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미국에 알리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작문경연대회에서 수필 부문은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본을 읽고 수필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조 부문은 영어로 시조를 창작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정형시인 시조 알리기에 앞장서 2월 7일을 '세계 시조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시조를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국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시조 쓰기 교육과 시조 수업 강의 세미나 등을 실시해왔다.

지난 3월 달 표면에 착륙한 무인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의 인류 문화유산 타임캡슐에 한글 시조 8편을 담아 보낸 것도



2004년 설립 이래 세종문화회를 이끌고 있는 박종희(루시 박·의대 69 입) 동문.

세종문화회가 이뤄낸 쾌거다. 타임캡슐에 우리 시조를 담은 블루 고스트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튜브 채널 등으로 세계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세종문화회 웹사이트(www.SejongCulturalSociety.org)에 가면 제 20회 세종작문경연대회 수상작은 물론 관심있는 동문들은 한국 시조 짓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한편, 세종문화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연례 기금모금 만찬을 올해 다시 시작해 오는 9월 13일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한류 전문가 샘 리 처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장학생 모집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가 뉴잉글랜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대상자는 뉴잉글랜드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세, 2세, 입양자로서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최진민(공대 71) 회장은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네트워크 및 멘토십을 형성하고 학업과 미래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장학금은 \$2000에서 \$3000 사이로, 특히 이 장학금을 독창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진 지원자에게 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5월 11일까지 신청서와 2쪽 이내의 에세이, 성적표 등 모든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6월 초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하며, 장학금 수여식은 6월 14일 동창회 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snuaane.futur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최연호(미대 76) 동문, 총영사관서 개인전

서양화가 최연호(미대 조소76) 동문이 지난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달간 워싱턴 디씨 소재의 총영사관 민원실에서 성황리에 개인전을 마쳤다.

최 동문은 마이애미에서 25년간 하였던 비즈니스에서 은퇴하고 5년 전 버지니아 Fairfax로 이사를 오면서 워싱턴 디씨 동문회에 조인했으며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총 8점의 아크릴 근작을 전시했는데 그림을 통하여 불평등, 소외 또는 소속감을 향한 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최 동문은오는 5월 14일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리는 HMAAGW(19한미 미술가협회 50주년) 그룹전, 6월~8월 워싱턴 캐츠박물관 그룹전시, 11월19~30일 갈라이트(뉴저지 NJ) KACAL(뉴욕 컨템퍼러리 미술작가 협회) 그룹전 등에도 참여한다.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터키 앙카라에서 한국작가 약 40명과 해외작가들이 참여하는 광복기념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연호 작가의 웹사이트는 ywchoi@gmail.com 이다.

취재= 한정희 <편집의원, 미대81>



왼쪽부터 서양화가 최연호(미대76), 그의 부군 최영웅 (외교73), 김태동(미대 92) 동문.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7대 이상강 회장과 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LA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구호소에서 접수를 맡은 이호진 안혜정 김영혜 동문(왼쪽부터).



매트리스를 수령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산불 피해 이재민들.

남가주 총동창회, 산불 이재민에 매트리스 1천개 선물 “나눔과 배려, 사회공헌의 중요성 실감했어요”

“이번 재난으로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집이 불에 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무상으로 매트리스를 받게 돼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 에인절 무디.

“우리는 이산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뽀뽀이 흠어져 살고 있습니다. 10살난 아들이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매트리스를 귀한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야디나 살리나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채규황·법대 69)가 지난 4월 12일 주말을 맞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1인용 3단 매트리스 300개를 나눠줬다. 매트리스는 사공웅(상대 84) 동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기증받아 동창회가 배부한 것이다.

당초 한차례만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민들이 몰려드는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매트리스 700개를 추가로 확보, 4월 26일 2차 배부를 실시했다. 이틀에 걸쳐 모두 1천개의 매트리스를 이재민들에게 공급한 것이다.

사공웅(상대 84) 동문 기증으로 동창회가 무료 배포
두 여성 동문은 휴가 내고 중형 트럭 몰며 운반까지

알타디나의 한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임시 구호소를 찾은 이재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모두 망연자실한 모습이였다.

올해 초 LA를 휩쓴 산불은 사상 최악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남겼다. 알타디나는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집과 상가 건물들이 마치 집중 폭격을 맞은 듯 흔적을 찾기도 어려웠다.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건물 잔해를 정리하기 바빴다.

첫날 구호소를 찾은 오세인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트리스 무상지급을 알게 됐다고 했다. 집이 전소돼 친척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고 있는데 매트리스가 꼭 필요했다며 남편과 딸 아이를 위해 매트리스 3개를 수령했다. 오씨는 아버

지도 서울대 출신의 엔지니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동창회는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아 매트리스를 배포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구호소에 나와 매트리스를 가져갔다.

동창회는 회장을 비롯해 박용필(문리대 66)·이영현(간호대 70)·김인종(농생대 74)·이호진(간호대 74)·안혜정(생과대 77)·양수진(간호대 80, 차기 총동창회장)·김희경(사대 80)·송호찬(공대 80)·김영혜(문리대 86)·송미선(음대 88) 등 임원들이 다수 나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현장에는 타인종 주민들도 자원봉사를 해 산불로 까맣게 탄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 안혜정(FDA 화학박사)·양수진

(Nurse Practitioner) 두 여성 동문은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각각 15피트짜리 중형 유출 트럭을 운전, 매트리스 350개씩을 구호소로 운반해와 놀라움을 안겼다.

주일 미군으로 근무했다는 지오바니씨는 접수를 맡아 3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다. 구호소에 파견돼 나온 육군 공병대 소속 병사들도 매트리스를 운반하는 등 일손을 보탤었다. 존 스튜어트 병장은 “주말마다 구호소에 나오는데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가 처음”이라며 엄지척을 해 보였다.

채규황 총동창회장은 “피해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든 분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또 “오늘의 경험이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사회공헌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사범대·가정대 연합 동창회... 94세 전상옥 동문에 큰 박수

신혜원·나용화 동문, 새 동창회장에 선출
김지영 동문이 ‘작가 이상의 여자들’ 강연

남가주 사범대(회장 김희경)와 가정대(회장 김경숙)의 연합 동창회 모임이 지난 4월 19일 LA의 용수산 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 새 동창회장단이 선출됐으며 흥미있는 강연과 풍성한 여흥이 곁들여져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사범대 새 동창회장에는 신혜원(영어교육과 81) 동문이, 가정대(생활과학대) 동창회장에는 나용화(식품영양학과 79) 동문이 각각 선출돼 앞으로 1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이어 김지영(사대 영어교육과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작가 이상의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동문은 흥미있는 내용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동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이는 사범대 전상옥 동문. 올해 9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 않은 기억력과 꽃피듯한 성품으로 좌중을 압도하다시피 했다.

래플 이벤트는 예상보다 많은 선물로 풍성함을 더했으며 노래방 시간은 동문들의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연합 동창회 모임에는 채규황(법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회장이 함께 참석, 자리를 빛내줬다. 두 회장의 참석은 동문들에게



지난 4월 19일 LA에서 열린 남가주 사범대와 가정대 연합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원래 가정대학은 사범대 소속으로 출발했다. 1968년 가정대학이 신설되면서 가정관리학과와 식품영양학, 의류학과의 3개 과가 설치됐다. 1999년 가정대학은 생활과학대학(생과대)로 명칭이 변경됐다. 가정대의 뿌리가 사범대여서 두 대학이 이날 연합 동창회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연합동창회에는 사범대 측에서 전상옥(52), 차종환(54), 변홍진(59), 주영세(59), 임항균(73) 김규정(76), 김희경(80), 이상호(80) 동문 등이, 생과대 동창회에선 오송자(59), 박자경(69), 이경희(60), 류정순(69), 김경숙(70), 제영혜(71), 염인숙(78), 박성연(88) 동문 등이 참석했다. 박성연 동문은 이날 새 회장단에서 총무를 맡았다. (팔호안은 학번).

취재= 양수진(간호대 80)

“거동 불편한 선배님들 찾아가 말벗하며 집안일도 도와” 김동옥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장의 아름다운 ‘선배 사랑’ 화제

한 분 한 분 전화해 안부 묻고 건강 기원
따뜻한 후배 발걸음에 선배들 환한 미소

4월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김동옥(간호대 70)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장의 발걸음은 분주합니다.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안부를 여쭙고, 건강을 기원하며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선배님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동창회장은 젊은 시절 함께 땀 흘리며 간호사의 꿈을 키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선배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때로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온 세월의 지혜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는 더욱 깊은 정을 나눕니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준비해 간 작은 선물을 건네며, 따뜻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선배님께서는 집안일을 돕거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합니다. 동창회장의 진심 어린 마음은 선배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어나게 합니다.

옛그제 김동옥 동창회장은 강윤희(간호대 47) 대선배님도 찾아보았습니다.

정갈하신 모습으로 맞아 주셨다고 합니다. 미술을 전공한 손녀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들어 보여주시며 색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어 참 기쁘다고 하십니다.

좋은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공부를 계속하여 준비하라,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자신을 예쁘게 가꾸어라.”

바지를 입지 않으시는 선배님께서 분홍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연보라색 손톱이 보기에 참 좋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창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선배님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따뜻한 발걸음은 동창회에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동창회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표하며,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행은 간호대 동창회의 따뜻한 전통으로 이어져, 앞으로 또 훈훈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취재=양수진(간호대 80)



김동옥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장이 거동이 불편한 강윤희 대선배 집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월 18일 부에나파크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에 참석한 동문들. 김동옥 동문은 이날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끈끈한 수의대 동문들 ... 모교 학장도 줌으로 동창회 참여

이용훈 신임 회장, 역점 추진 사업 발표
후배 지원, 반려동물 검진센터 등 논의

남가주 수의과 대학 동창회는 지난 4월 14일 LA의 용수산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이용훈(84학번) 동문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용진(91학번) 회장의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용훈 동문은 앞으로의 임기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발표해 동문들의 기대를 모았다.

이어 모교의 조제열 신임 학장과의 실시간 화상연결(줌)을 통해 동문들은 뜻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는 수의대 후배들을 위한 지원방안과 최근 서울대가 개설한 SNU 반려동물 검진센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또한 유형규(66학번) 동문이 지난 4월 1일 모교 방문 보고를 통해 수의대의 발전상황과 반려동물 검진센터의 운영현황을 공유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프리시전 진단주식

회사의 장건위 박사가 스폰서로 참석, 최첨단 진단장비를 소개하고 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할인혜택을 제안했다.

이어 각 동문들의 근황소개가 이어져 서로의 발전과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모임은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동문들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양수진(간호대 80) 차기 남가주 총동창회장이 참석, 젊어지는 동창회에 대한 바람을 함께 나누었고, 총동창회가 벌이고 있는 LA지역 산 불피해자 돕기를 소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2013학번의 조성진 동문이 참석해 선배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수의대 동창회는 6월 1일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해 동문들간의 친목을 다질 예정이며 7월 26일에는 모교 수의과 대



남가주 수의대 동문들이 지난 4월14일 LA에서 모임을 갖고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는 포즈를 취했다.

학 학장, 부학장(4명)을 환영하는 리셉션을 개최,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학번).

박종수(58), 유형규(66), 최재현(66), 하병래(67), 권태삼(73), 승원표(73), 강

동원(75), 이사균(75), 이재현(75), 이승택(75), 박재찬(79), 최재을(80), 최용준(81), 김성엽(81), 김영주(88), 조성진(13).

이외에도 손영아(음대 85), 신경섭(문리대 91) 동문 등이 게스트로 참석했다.

취재=양수진(간호대 80)

유튜브로 본 독일 중소 도시에 매료돼 훌쩍 떠났다



박준창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79)

반겨 줄 사람 하나 없다. 오라고 한 사람도 없다. 여기 일도 많다. 그래도 나는 간다. 도이칠란트, 저머니, 덕국, 독일로. 이 나라로 나는 왜 가는가? 나는 유럽이 좋다. 어릴 때 부터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양을 좋아했다. 항상 유럽을 동경했다. 그들의 부, 역사와 전통, 도시와 농촌의 아름다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 역사까지도.

37년 전 유럽 여행을 시작으로 여행을 제법 했다. 서유럽, 동유럽, 동유럽 중에서도 특히 오래 왔다 갔다 했던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배낭 여행으로 떠났던 남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까지. 그래도 내겐 성이 안 찬다. 이번엔 독일을 다녀 오기로 했다. 한때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나라. 공업화, 근면, 성실, 정확, 딱딱함, 잘 사는 나라로 알려진 곳.

유튜브로 보던 독일 중소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37년전 독일 여행에 대한 향수도 일어났다. 그러나 막상 출발하기까지 순탄치는 않았다. 사무실 이사에, 중요한 일에, 중요한 일 때문에 미루어 놓았던 일들 처리까지. 출발 하는 날까지 동동 걸음을 치며 서둘러야 했다.

제 1일 (3월 31일-4월1일): 코펜하겐 - 프랑크푸르트

11시간 비행에 경유까지 하게 되어, 이 날 하루는 그냥 이동이다. Base camp 인 프랑크푸르트에 밤 9시 넘어 도착했다. 숙소는 유스 호스텔. 적으면 3명 많으면 7명, 10명까지도 자고, 남녀 혼숙까지 하는 이런 싸구려 숙소를 왜 하필 65세 늙은 노인이? 혼자 우두커

니 호텔 방이나 Airbnb에서 있으면 뭐 하냐? 차라리 젊은 애들이랑 한 마디 말이라도 나누는게 낫지. 싼 숙박비는 그 다음이다.

난 여행에서 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호텔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지는 않다. 불편하기는 하다.

유스 호스텔도 지역마다 천차만별. 관 같지만 불빛이 안 새어 나가는 곳도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 좁디 좁은 방에 침대 4개가 옆 사람과 1미터도 안될 것 같은 거리에 있어 숨소리가 다 들리기도 하고 (코펜하겐), 넓지만 화장실과 샤워가 방 안에 없고 (뮌헨), 꽤 넓게 쾌적한 큐브 호텔도 있고(로테르담), 가정집 뒷채 스타일도 있고 (남 프랑스 악상 프로방스). 한마디로 고생스럽다. 하지만 난 그런 고생은 좋다.

숙소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그러나 흥등가 한복판이다. 알고 왔다.

동네가 험악하기는 하다. 마약 거래자, 노숙자, 술 주정뱅이, 마약 복용자, 유곽 안내자. 하지만 9시가 넘었는데 여자들도 걸어 다니고, 설마 뭐 나쁜 일이야 닥치겠는가 근거없는 믿음으로 태연히 숙소까지 아무 일 없이 왔다. 방에 들어 오니 젊은 20대 여자가 짐을 싸고 있다. 영국에서 왔는데 방을 옮긴단다. 다른 룸메이트는 포르투갈 남자인데 영어 액센트가 너무 심해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는 수준. 어쨌든 하나라도 줄여서 두 사람만 쓸 수 있게 되었다.

제2일 (4월 2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는 37년 전 추억이 있는 곳이다. 법과 대학원 졸업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졸업 선물을 선사했다. 재학때 받은 학자 용자금을 모았다가 졸업 여행 경비로 쓰기로 했다. 제일 싼 컨티키(Kontiki) 투어라는 곳. 영어권 50여명을 모아서 런던에 집결, 버스로 유럽 투어하는 패키지. 제일 싸구려이다 보니, 점심은 각자 돈으로 해결하고, 숙소도 일급 호텔부터 진흙탕 야전 침대까지. 아침식사 서빙(serving)은 돌아가며 한다. 식사도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슬리핑 백도 각자 지참.

힘든 행군이다 보니 나이 제한이 있다. 최고령 32살까지만. 그때도 나는 최고령에서 둘째였다. 내 나이 28세였으니.

여정 중에 독일은 3군데였는데 하이델베르크도 그중 한 곳. 하이델베르크 대학 근처 맥주집에서 장화모양의 유리 잔에 맥주 마시던 시험 기억밖에 없다. 여러 명이 차례로 돌려 가며 마시는데 앞 사람이 잔을 비워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벌을 받는다. 애초 독일 여행 계획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상하게도 하이델

베르크가 잊혀 지지가 않아 하이델베르크 여행을하기로 하는 김에 다른 독일 도시들도 돌자고 계획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여행 첫날부터 실수. 9시 19분 기차를 놓쳤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서 출발인데 나는 2-3분전쯤 기차가 들어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이 기차가 20분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나는 다른 기차인줄 알고 기다리다가, 내 기차는 연착하는 줄로 생각했다, 워낙 독일 기차가 연착으로 악명이 높기에. 그런데 이 기차 정확히 9시 19분에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때서야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글자 그대로 기차 떠나 버리고 난 후. 안내 데스크에 물어 보았더니 표를 새로 사거나, 일단 다음 차승차한 다음 검표원에게 얘기해 보란다. 내 티켓은 몇달 전에, 환불 불가표로 예매한 것이라 취소는 불가하다. 1시간을 기다려, 무작정 다음 기차를 탔다. 검표원이 오더니 표를 보자고 한다. 설명했다. 내가 바보라서 잘못 생각했다고. 불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괜찮다고 한다. 그럼 지가 뭐 어떨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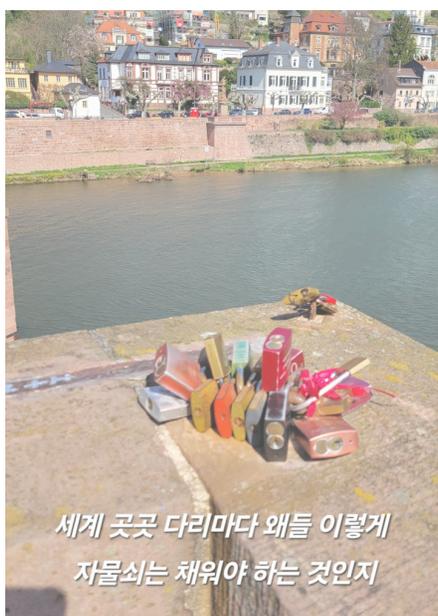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역에 내렸다. 정말 내가 여기 왔었나? 낯설기만 하다. 정해진 관광 코스를 밟았다. 하이델베르크 고성, 구 다리 (특별한 이름없이 그냥 Old Bridge다), 철학자의 길. 예뻐지만, 37년전 기억도 흔적도 없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제3일 (4월 3일): 쾰른 (Colog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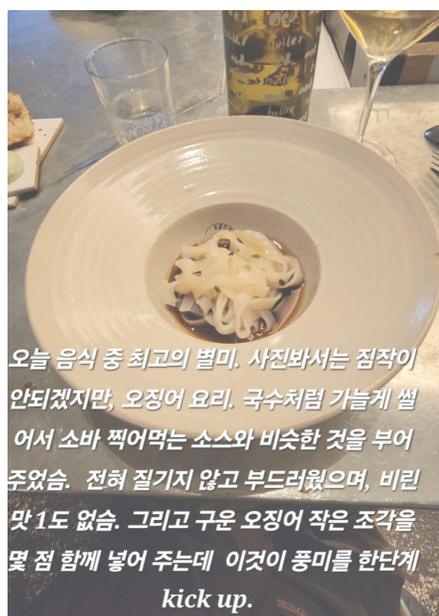
우리 나이 때 사람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고딕 양식의 대표 건물로 쾰른 대성당 사진이 나온다. 오늘은 그 성당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하는 날. 성당은 쾰른역하고 바로 붙어 있다. 무척 높다. 시커먼 건물이 뾰족하게 솟아 있다. 100 미터가 넘는다고 했지? 유럽에서 둘째인가 세번째로 높다고 했지 (사람들은 순위를 좋아한다. 뭐든 순위를 매겨야 직성이 풀리나 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하다고. 서울대 동문들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같은 서울대라도 문과의 경우, 서열은 항상 법대, 경영대, 사회대, 인문대 이 순서가 아닌가? 내가 다녔을 때에는).

쾰른 성당 바로 앞에 식당이 있었다. 앉아서 성당을 볼 수 있는 곳. 자리를 잡고 독일의 대표 음식 슈니첼과 이곳 대표 맥주 쾰쉬를 시켜 본다. 하염없이 성당을 바라 보며 돈가스 같은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신다. 이런 것이 힐링인가? 물론 바라보며 멍 때리는 물명, 불 바라보며 멍 때리는 불명이라는데 난 성당 멍을 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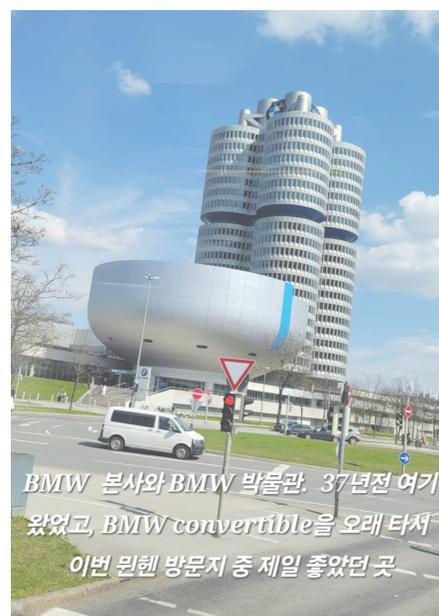
그리고 투어 버스를 탄다. 피곤했나 보다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이 없다. 잠만 잤다. 라인 강을 바라 보는 박물관 옆 카페. 알콜 음료는 없고 시원한 드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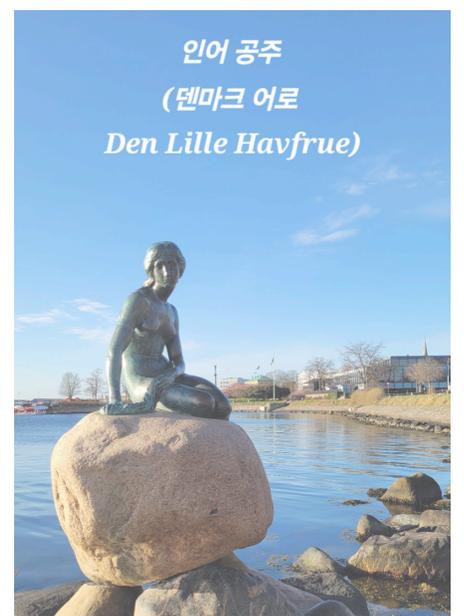
세계 곳곳 다리마다 왜들 이렇게 자물쇠는 채워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음식 중 최고의 별미. 사진보다는 짐작이 안되었지만, 오징어 요리. 국수처럼 가늘게 썰어서 소바 찍어먹는 소스와 비슷한 것을 부여 주었음. 전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웠으며, 비린 맛 1도 없음. 그리고 구운 오징어 작은 조각을 몇 점 함께 넣어 주는데 이것이 흥미를 한단계 kick up.



BMW 본사와 BMW 박물관. 37년전 여기 왔었고, BMW convertible을 오래 타서 이번 뮌헨 방문지 중 제일 좋았던 곳



인어 공주
(덴마크어로
Den Lille Havfrue)

기차 타고 이곳저곳 유스 호스텔 묵으며 홀로 즐겨

와 초콜렛 음료에 있다. 피곤한 다리를 쉬게 하면서, 민트를 올려 놓은 찬 베리 음료를, 강을 조망하며 마셔 본다. 여행 중 내가 좋아하는 순간이다. 관광 명소 앞에서, 맥주든, 와인이든, 콜라든 마시면서, 지친 다리를 쉬게 하면서, 다른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을 바라보는게, 나에게도 여행의 큰 즐거움이다.

제4일 (4월 4일): 뉘른베르크(Nuremberg) 와 밤베르크 (Bamberg)

나치의 원산지. 전범 재판소. 이런 생각때문에 뉘른베르크는 제킬까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랬으면 큰 후회할 뻔 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다. 역에서 나가자 원통형 중세 유적이 맞아 주고, 그 주변 가게들이 너무 예뻐다. 큰 길로 나오니 예쁜 집들과 거리. 눈이 즐거워 1시간 정도를 걸어 다니다, 투어 버스를 탔다. 요즘 투어 버스들은 hop on, hop off 다. 원하면 내려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면 된다. 대개 표 한장으로 24시간 유효하고, 1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므로, 내려서 충분히 구경하고 다시 버스를 타면 된다. 값도 비싸지도 않다. 대개 20 유로에서 30 유로 선. 교통비 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웬만한 도시마다 다 이런 관광 버스가 있으니, 특히 배낭 여행객에게 좋다.

아직 관광 비성수기라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전장 없는 오픈 버스 2층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뉘른베르크 시가를 둘러썬 중세 담벽을 끼고 돌면서 전범 재판을 했던 곳, 화가 알브레흐트 뒤러의 무덤, 황제의 성, 오픈 시장 등을 봤다.

그리고 밤베르크. 유튜브로 볼 때 참 예뻐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본 것과는 달리 어째 좀 기대이하인 것 같다. 아마도, 비슷한 뉘른베르크를 보고 와서이기 때문이리라. 나중에 사진 찍은 걸 보니 밤베르크가 참 예쁘게 나오긴 했두만. 밤베르크는 이렇다 할 산업 시설이 없어 뉘른베르크와는 달리 연합군의 공습이 거의 없었던단다. 그래서 중세 건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밤 묵을 곳 뮌헨 행 기차를 탔다. 오늘도 역시나 연착. 독일 기차의 연발, 연착은 악명이 높다. 심지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을 경우, 그 전날 와서 묵는다고. 예전엔 이태리 기차 연착때문에, 유럽을 관통하는 유레일(Eurail) 이 다 늦어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독일 기차때문에 다 늦어진단다.

제5일 (4월 5일): 뮌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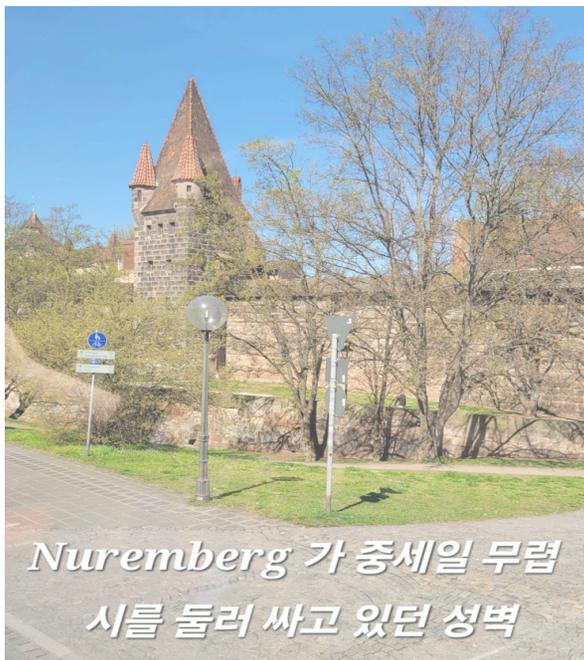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다음으로 이번 독일 여행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곳이다. 37년 전 이곳을 들어서 BMW 본사 구경을 했고, 진흙탕 야영장 야전 침대 위에서 잔 듯하다. 그리고 이때 마침 October Fest 중이었고. 넓은 광장에 뻑뻑히 텐트를 쳐놓고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무로 된 길다란 의자에 앉아 통닭과 맥주를 먹고 마시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옛날 기억의 흔적을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다. 오후 투어 버스를 타고, BMW 본사를 지나가는데 이제 뮌헨에 온 것 같다. 다만, 기억이 다른 점은 둥근 bowl 모양의 BMW 박물관은 기억이 나지 않고, 건물도 원통형 건물 2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 3개인가 4개인듯 싶다.

제6일 (4월 6일): 프랑크푸르트-코펜하겐

오늘은 독일을 떠나는 날. 프랑크푸르트에 base camp를 차렸음에도 막상 프랑크푸르트는 구경을 못 했다. 오후 출발 비행기라 일찍 일어나 프랑크푸르트 시내를 돌아 보기로 했다. 구글 지도로 프랑크푸르트의 시내 중심인 로마 광장(Romerberg)을 간다. 그런데, 이 구글지도 엉망이다. 뽕뽕 돌리더니 출발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으로 되돌려 놓는다. 할 수 없이 지하철을 탔다. 불과 두 정거장. 그런데,



켈른 대성당을 보며 쉼니첼과 쉼니첼 맥주를 마셔 봅니다.



Nuremberg 가 중세일 무렵 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

날씨가 무지하게 춥다. 출발 전 독일 날씨 예보를 보니 상당히 추워서, 비옷에다, 보온 내의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은 날씨가 좋아 참 다행이었다. 오늘은 독일 추운 맛을 제대로 보여 주네. 연신 콧물이 얼마나 흘러 내리는지 아주 고생. 뒤편 광장에서 인증 샷을 찍고, 다시 버스를 탄다.

그리고 코펜하겐. 5시쯤 코펜하겐 중앙역에 내렸다. 호스텔까지는 1 킬로미터 정도. 이번 여행의 모든 숙소는 그 도시의 중앙역 부근으로 잡았다. 대개 유럽 도시들은 중심이 중앙역이어서 교통도 그렇고 볼만한 곳도 다 중앙역에서 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 역에는 다 짐을 넣어 둘 수 있는 락커(locker)가 있어서, 짐을 두고 가볍게 돌아 다닐 수가 있다. 배낭 여행을 해 보니 알게 된 여행 팀.

다음 날 오후 2시 15분 출발 비행기라 코펜하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맛있는 해산물 식당에 가서 저녁 먹기. 배낭 여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못 먹는다. 대중교통 시간에 쫓겨 역에서 파는 간단한 음식을 차 안에서 먹거나 숙소로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한다.

이번 여행에서 느긋하게 제대로 된 음식은 딱 한번, 쉼니첼에서 성당 명 때리며 먹게 전부. 그래서 코펜하겐에서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좋은 해산물 저녁먹기였다. 구글지도에서 찾아 식당에 들어 섰더니 어째 깔끔한 맛이 없다. 왠지 지겨운 선술집 분위기. 더군

나 혼자라고 바(bar) 로 안내를 한다. 그것도 모서리. 테이블에 호젓하게 혼자 앉아, 이것저것 시켜가면서 와인이라 천천히 먹고 싶었는데. 흰 와인 한잔을 시키고 생굴을 시켜 본다. 5가지 생굴을 다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

뜯뜯해 보이는 웨이트리스가 와서 음식 알러지(allergy)는 없는지 묻고, 5가지 굴에 대해 설명도 해 준다. 우리가 흔히 보는 horse radish대신 식초에 무엇인가를 잘게 썰어 놓은 소스를 주는데, 이 맛이 너무나 상큼 신선하다. 물어 보았더니 오이와 사과란다.

입에 남는 맛이 너무 좋아 오히려 와인이 방해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홍합(mussel)이 나왔는데, 이 또한 독특하다. 홍합위에 오이, 많이 구운 양파, 딱딱한 빵 조각을 올렸는데, 너무 부드럽고, 이게 홍합인지 야채인지 모를 정도.

다음으로 메인 요리 오징어가 나왔는데, 오묘한 맛이다. 오징어를 채를 썰어서, 국수같이 보이는데, 소바 짝어 먹는 소스같은 것을 부어 준다. 그리고, 간간이 씹히는 것이 마치 한국의 마른 오징어를 불에 구운 것같은 작은 오징어 조각들인데 이 불 맛이 전체 맛을 kick up 시켜 준다. 식당 분위기는 대중적인데, 요리는 미술쟁 수준이다. 물론 양은 참 작다.

그런데 역시 코펜하겐의 살인적 물가. 와인 한잔, 요리 4가지 (빵은 포함)에 150불이 나왔다.

제7일 (4월 7일) 코펜하겐-엘에이

코펜하겐을 떠나는 날. 오후 비행기라 또 일찍 나왔다. 목적지는 인어 동상. 코펜하겐에 왔으니 여기를 안 와 볼 수는 없다. 지하와 지상을 오가는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한참 걷는다. 이른 아침이고 관광 비수기라 아무도 없다. 동상 바로 앞에서 느긋하게 사진찍고 비디오 찍고. 코펜하겐에 왔으니 또 다른 필수 코스 니하운(Nyhavn)을 안 가 볼 수는 없지. 그런데 걷기에는 약간 부담된다. 이번 여행 내내 줄곧 걸었고, 의외로 내가 잘 못 걷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니하운 하면 인공 운하 주변의 예쁜 집들로 유명하지만, 역시 안데르센이지.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동화들을 집필했단다.

지친 다리를 쉬어야 했기에 빵집에 들어서 빵과 커피 한잔을 하고 싶다. 지친 다리를 쉬게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천천히 마신다. 사진을 찍으려고 내 모습을 보니 지친 기색이 완연하다. 추운날, 이른 아침에 많이 걸은데다, 여행 마지막 날이니.

여행이 끝날 때면 난 늘 아쉽다. 하루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매번 든다. 여행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데, 집 떠나면 고생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난 여행이 왜 좋은 것인가?

나처럼 이런 의문과 대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글을 여기 옮겨 본다.

“여행과 예술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쓸모는 없는 대신,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기를, ‘좋은 술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맥주든 위스키든 와인 이든 간에 그 참 맛을 음미하려면 술이 생산된 현지로 가야 한다는 말일게다. ...술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예술 작품이 탄생하고 연주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 작품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전원경, 예술, 도시를 만나다, 서문).

그렇다. 나는 유럽의 공기, 역사, 문화, 예술, 사람, 음식과 술을 현지에서 느끼고 싶다. 아무리 예쁘게 잘 찍은 유튜브 영상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실감나는 미디어도 실제 느끼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12시간 불편한 비행기 여행도 마다 않는다. 좁은 숙소도 마다 않는다. 걸어 다녀야 하는 피곤함도 마다 않는다. 나는 돌아 오자마자 다른 여행 계획에 착수한다.

〈TV 부처〉가 내 마음에게



손명세
(공대 60)

AI가 화두를 점령하고 있는 어제 오늘, 인간의 두뇌에 대한 이야기는 유혹적인 주제다. 이런 저런 생각에 기웃거리다가 상념에 잠겼다. 매일매일 기록을 깨는 무더위 속에서도 견디고 있을 오래 전에 보았던 백남준의 〈TV 부처〉로 마음이 가서 머물렀다.

〈TV 부처〉는 부동의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있다. 돌 부처는 TV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우친 자가 부처다. 〈TV 부처〉는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응시하고 있는 형상이다. 피어난 꽃이 내가 누구인가 들여다보는 모습이다.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 그 안에서 배어나오는 색깔 같은 것이 보일 듯싶다.

텔레비전 화면의 부처는 거울에 비춰보는 자기가 아니다. 나르시스(Narcisse)가 아니다.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텔레비전 앞에 놓인 카메라가 그의 이미지를 포착한다.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속도의 전송 과정을 거치고 나서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동안 부처는 조용히 명상에 잠겨 있다. 카메라는 그에게만 고정된 것도 아니다. 움직일 수도 있고 TV밖의 세계의 유혹에 포착될 수도 있다. 외부의 욕망과 희로애락이 TV를 통해 부처의 마음을 형클어 놓고 감정을 흔들 수도 있겠다. 영똥하게 부처 감시 카메라의 영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를 명상하고 있는 형상이다. 액자 속의 액자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과 같은 다층적인 광경이다.

눈에 분명히 보이고, 마음으로 뚜렷이 느껴지는 것들, 심지어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라도 사실은 비어 있는 것이라고 불자들은 말한다. 즉 모든 사태는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찰나이고 지나가버리는 것이라 빈 자리라고. 그게 ‘색즉시공(色即是空)’이고 부처의 깨달음이다. 아직 어둠속에 있어서 찰나적이고 덧없는 욕망을 확고 부동한 것이라 집착하는 데에 고통이 있다고 설파했다.

〈TV 부처〉가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가 싶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리가 혼란스럽고 묘연하다. 상상



〈TV 부처〉, 1974 백남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끊임없이 삶이 전개되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실재를 주시해야 한다. 동시에 내 안을 응시하면서 새로운 밖의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의 과제가 있다.”

이 현실을 잉태하고 딥 페이크(Deep Fake)가 자라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겠다.

TV 영상은 끊임없이 소유로, 즐거움으로, 강건함, 부귀로 향한 욕망으로 부추겨서 보는 이를 즐겁게 자극하며 지나간다. 돌 부처는 반은 열고 반은 감은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반은 종잡을 수 없는 바깥의 변화를, 반은 마음 안의 반응을 응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마음의 길잡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마음이 심장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마음이 작동해서 삶을 산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 채 살아왔다. 인공지능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 과학과 심리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뇌에 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란 오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온갖 정보와 더불어, 이미 기억되어 있던 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해석해서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실체적이지 않고 가변적이다. 빗대서 말하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불상의 하드웨어인 귀가 크다. 모든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인가. 큰 귀바퀴로 미세한 소리마저 포착하면 희로애락 감정의 기록도 클 터인데 돌 부처의 진중함이 무게만큼 돋보인다. 그래서 나는 귀가 크다는 말 대신에 귀가 무겁다 라

고 말한다. 마음이 기록을 소프트웨어로 다독인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tv 부처〉 이외에도 tv와 돌 부처를 소재로 백남준은 여러 작품들을 만들었다. 집에서 가까운 UCSD 거주 샌디에고 교정에는 토스터만 한 구식 tv와 돌 부처 토르소가 풀밭에서 마주보고 있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미술관이나 좌대 위에 있지 않고 야외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작가의 특별한 의도가 엿보인다. 어린 시절 논밭의 두렁길 옆 흙 속에 몸이 묻힌 불상이 떠올랐을지 모르겠다. 땅은 삶의 공간이다. 삶이란 온갖 입력, 봄과 들음에 노출되어 있고 역동적이고 유혹적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끊임없이 삶이 전개되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실재를 주시해야 한다. 동시에 내 안을 응시하면서 새로운 밖의 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의 과제가 있다.

내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를 확보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도 순간순간 변화에 노출된 나를 알지 못하면 지금의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 내가 무엇인가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나를 바로 알 수 있겠다. 오늘도 더위에 눈꺼풀이 풀린다. 감기는 눈을 뜨라고 〈TV 부처〉는 내 마음에게 속삭인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即是空 空即是色) - 대승불교의 반야심경(般若心經)에서

동문시



정홍택(상대 61)

나의 살던 고향은

(동요 〈고향 생각〉에 운(韻)을 맞췄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한국의 서울 자동차와 사람이 북적대고요
높고 얇은 빌딩들 키를 재는 곳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림습니다

아파트 들어선 나의 옛고향
먼 바다 남쪽에서 봄바람 불면
가로수 빗꽃들이 휘날리는 곳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림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의 옛 친구들아
너희들 그동안도 잘 있었느냐
만나면 껄껄웃음 설움을 잊던
정다웠던 그 얼굴들 보고싶구나

2025. 04. 15



박상근(법대 75) 동문의 선교 사역 현장 기행문

언어는 달라도 복음은 똑같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이 코비드 전이니 벌써 6년이 넘었다. 마음으로 계속 걱정하고 준비해 2025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 길은 주님으로 인한 만남과 사역의 현장들을 따라가는 은혜의 순례였다.

먼저 한국에 잠시 머물며 그리운 친지들과 짧지만 귀한 시간을 나눈 후, 3월 18일 저녁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무더위와 낮은 풍경 속에서도, 선교센터에서의 따뜻한 환대는 피곤한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인 3월 19일 아침, 현지 로컬 지도자들을 위한 속성 신학교육과정 졸업식에 참석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이들의 눈빛은 얼마나 맑고 뜨거웠는지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캄보디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졸업식 후에는 2차대전 당시의 유대인 학살 이후로 아마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킬링 필드(Killing Fields)를 방문했다. 그 곳에는 당시 학살당한 이들의 사진도 있고 시신이 몰라 볼 정도로 부패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들도 많았다. 폴 포트 정권이 외치는 구호에 따라 그 땅에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약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흔적이 곳곳에 서려 있었다. 인간이 이리도 잔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음날부터는 라오스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두 마을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영어 단어를 따라 하며 웃고 놀이시간에는 물풍선을 던지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난 3월 선교 여행을 한 워싱턴DC 박상근 동문이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부인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박 동문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북미주 기독교 실업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또한 바나나 농장에 일하러 산에서 내려온 부모들을 기다리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성경구절을 외우게 하는 사역도 보았다. 언어는 달라도 복음은 똑같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3월 25일에는 Air Asia 편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막 심리상담소 사역을 시작하신 두 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 개업예배에 참여했다. 아무 연구도 없는 이국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 상담소 장소도 마련하고 이제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내주시는 간증을 들으며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7일에는 남편 선교사님의 인도로,

쿠알라룸푸르에서 배로 한 시간 떨어진 섬으로 향했다. 그 곳은 온통 토속불교로 마을 입구부터 불상과 부적이 가는 곳마다 있었지만 이런 곳에도 어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작은 씨앗 하나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직접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금번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해 알게된 것이 그 나라 대부분의 인구는 서쪽의 말레이 반도에 살며 말레이인이 약 70%, 화교가 약 20% 그리고 인도인이 약 10%정도이고 청년과 장년층이 인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앞으로 인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과 말레이인에게 함부로 전도했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3월 28일 저녁, Turkish Air를 타

고 중동지역에서 가장 바쁘다는 이스탄불 공항에서 몇 시간 체류하며 그 곳의 맛있는 과자와 풍물을 경험하고, 3월 29일 늦은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전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음을 되돌아보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벅차오르는 감사로 가득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환경도 언어도 음식도 전혀 다른 곳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불편함과 피로도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멀리서도 기도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박상근 동문이 방문한 라오스의 한 마을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 왼쪽은 물풍선 놀이를 하는 아이들.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 부부는 부모들이 일하러 간 사이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샤인 기부.
당신이 만드는
빛나는 변화

You are my SNUshine!

눈에 보이는 변화, 참여하는 재미, 함께 만드는 미래

서울대를 밝히는 가장 작은 움직임, 당신의 기부에서 시작됩니다. 블록 하나 하나를 쌓아가듯,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서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샤인기부에 \$300이상(1회) 참여하는 후원자님께 웰컴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샤인 굿즈 자세히 보기
snu.or.kr/snushine

샤인 기부 참여하기
snu.or.kr/snushine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우측 간단 참여 신청서를
찍어 213-435-1974로 문자 보내주세요.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는 기부액 으로 기부에 참여합니다.
연락처 휴대폰 번호 전공 학과 입학년도 년 입학

트럼프의 '3선 도전'



김학천
(치대 71)

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4선 대통령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3년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누르고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세 번의 대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되었던 거다.

당시 이같은 루스벨트의 3선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3선 금지 헌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연임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자 후임 대통령들이 불문율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인기가 높았던 루스벨트의 3선 출마를 강행했고 4선 때도 여러 반발이 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상황 등을 이유로 밀어붙였던 거다. 이후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951년 비준된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번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발언 때문이다.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는 라스베가스 집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라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고 농담같이 흘렸다. 그러더니 엇그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공화당의 오글스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3선 도전을 위한 헌법 개정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2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를 '3회 이상 선출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두 번 연임한 사람은 세 번째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현재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들은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런 와중에 CNN을 비롯한 몇 언론들이 그 가능성을 짚어보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태여 3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헌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 허점이란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선출(be elected)'라는 문구, 이에 주목했다. 즉, 이는 3번 선출(third election)을 금지한 것이지, 재선된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serve)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서 두 차례 선출됐던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의 사임이나 사망으로 세 번째 대통령직을 맡게 되는 건 선출이 아니니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트럼프의 경우 이미 재선이므로 2028년 대선엔 더 이상 도전할 수 없지만 최측근인 현 부통령 J. D. 밴스를 명목상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다음 밴스가 취임과 동시에 사임하면 부통령인 자신이 승계함으로써 세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승계하게 되

면 2037년 초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마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닮은 꼴수같다. 그는 2008년 헌법상 세 차례 연임이 금지되자 최측근인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 당선시키고 자신은 총리로 취임해 막후에서 상왕 노릇을 했다. 그리고는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대통령 연임 제한을 아예 철폐해 버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다.

한편에선 트럼프의 3선 도전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거다.

아무튼 미 헌법 개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50개 주의 4분의 3이 비준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절차인데 어느 방법을 취하든 '예측 불허'인 트럼프 성향에 비추어 볼때 3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헌데 '3선 개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폴 버니언의 미네소타

미네소타는 물을 품은 땅이다. 동네마다 호수가 깃들여 있고, 그 수만 해도 무려 1만 개가 넘는다. 이곳 초등학교들에게 왜 호수가 그렇게 많은지를 물으면, 열이면 아홉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묻는다. "그것도 모르세요?" 짐짓 놀란 표정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 대답이 돌아온다. "그거야, 폴 버니언(Paul Bunyan)이 만든 거잖아요."

폴 버니언은 전설 속의 거대한 나무꾼이다. 집채만 한 도끼를 어깨에 둘러멘 채 숲을 헤치며 걷기만 해도 땅이 움푹 꺼졌고, 그 자리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되었다고 한다. 만여 개나 되는 미네소타의 호수들이 모두 그의 발자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그의 발이 얼마나 컸길래? 말이 씨가 되려면, 뺨도 적당히 쳐야 할 터. 하지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천진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믿는다.

그에 얽힌 이야기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끼 한 자루로 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냈다가, 미시시피강에서부터 로키산맥까지 나무

를 죄다 베어내 드넓은 평원을 만들었다든가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심지어 미시시피강도 그가 퍼 올린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두 손으로 짊어지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이 거인을 중심으로 쌓여 있다.

폴 버니언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건 1910년대. 벌목꾼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떠돌던 이야기를 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가 책으로 펴내면서다. 하지만 그를 진정한 미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든 이는 바로 계관사인 로버트 프로스트였다.

'폴의 아내(Paul's Wife)'라는 시에서, 프로스트는 전설 속에 존재하지 않던 '아내'를 등장시킨다. "폴을 벌목 캠프에서 몰아내려면/ 폴, 아내는 어 떠신가? 한마디만 던지면 됐지/ 그러면 그는 말없이 종적을 감췄다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 아내가 인디언 여성이라는 말도 돌았고, 시는 그런 소문과 상상을 하나씩 담아내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폴에게 '아내'란 결국,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 아니었을까. 대지의 너그러움, 생태의 질서. 그런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그녀를 훼손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전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시대적 배경도 작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미국을 단숨에 세계 중심국으로 끌어올렸다. 땅도, 힘도 가장 큰 나라. 커다란 것이라면 뭐든 미국을 상징하게 되었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맨해튼의 마천루처럼, 폴 버니언의 동상도 미 전역 곳곳에 우뚝 솟았다.

그 거인이 한반도에 등장한 적도 있었다.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도끼 만행 사건' 때문이다.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 장교 두 명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도끼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에 미군은 대대적인 무력 시위로 대응했고, 작전명은 다름 아닌 '폴 버니언'이었다. 작전은 미루나무를 아예 도

끼로 밀동채 베어내며 마무리됐고, 이어 북한 측의 사과 성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 전설의 땅, 미시시피강 언덕 위 세인트폴 호텔에서 오는 6월 20일 서울대학교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엔 유홍림 총장도 직접 참석한다. 해외 동창회 행사에 총장이 함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사실 서울대는 미네소타에 빛이 많다. 1950년대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선진 의료, 공학, 농업 기술을 전수받았고, 이는 훗날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과학기술과 교육의 기반은 그때 닦인 셈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랜드캐년도 폴 버니언이 도끼로 쪼고 파내어 만든 걸작이라 한다. 그렇다면 상상해본다. 한국의 DMZ, 그 비무장지대를 그에게 맡겨 보면 어떨까. 대량살상무기들은 도끼로 찍어내고, 그 자리를 생명의 숲으로, 평화의 보고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 안내 총동창회에서 장학금 받아

‘탄프로페셜’, 교수님을 태운 건가? 뇌리에 꽂히는 제목부터 궁금증이 커지는 네이밍이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교수’의 ‘쌀’이라는 뜻.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캠퍼스에서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박지영(농경제사회 98-01·사진) 동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다.

박 동문의 채널에는 기후와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친환경 루틴까지 친절한 설명이 가득하다. 박지영 교수에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농경제사회학 전공과 탄소중립 어떤 관계인가?

“농경제사회학부가 가지는 특성이 두 가지인데, 크게 농업 경제와 농촌사회의 발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농촌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과 팽창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제 구조의 변화, 재난이나 외부 효과에 의한 산업 구조의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게 되어있다. 특히, 재난 영향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 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와 기후, 환경 등의 글로벌 환경 문제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됐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자연 파괴가 다시 인간에게 어떤 걸 주는지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중들이 개인의 삶에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촬영, 편집 퀄리티가 좋은데 함께하는 팀이 있는지?

“‘뮤레파코리아’라는 연구기업을 유한 회사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연구 용역을 위해 시작했던 사업을 코로나 이후, 한국으로 옮겨와 연구팀과 미디어팀으로 나뉘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역할이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라 학문과 연계시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한 것이 설립의 원동력이 됐다.

예로, 제주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풍력발전소를 무조건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회에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아직 작은 기업이지만, 일찍이 주 4일제로 워라벨을 보장하고, 경력단절 인력 채용에 앞장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확하고 분석화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연구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연구도 바쁠 텐데, 기후 위기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고교 졸업 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서 ‘불평 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였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학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교 농경제사회학과에 재진학했다. 3년간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단기 졸업을 했더니, 당시 총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주셨다. 여전히 모교에 감사한 마음이 크고,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고 싶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제작한 영상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다. 주차별 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방송도 계획 중이고, 쌓아온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할 생각도 있다.

탄소 국경세가 시작이 돼서 개인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 탄소 발생을 줄이는 만큼 ‘탄소 크레딧’을 지급해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형태로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는 등의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있다. 나의 작은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꾸준히 알고고 싶다.”

▷ ‘탄프로페셜’ 채널 바로가기 : [https:// www.youtube.com/@netzero_professor](https://www.youtube.com/@netzero_professor)

신입생들 진로 선택시 연봉보다 관심사 중요

대학혁신센터, 향후 30년간 ‘학생중단조사사업’ 실시

서울대 사회학과 24학번 A씨는 입학 전부터 고민이 많았다.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가 될지, 아니면 실무 경험을 쌓으며 빠르게 사회에 진입할지를 두고 진로 계획을 반복해 수정했다. “입학 전에 생각했던 진로가 막상 들어와 보니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공 수업도 처음이라 낯설고,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계속 방향을 잡아가는 중이에요.”

A씨의 고민은 서울대 신입생 다수가 공감하는 주제다. 모교 대학혁신센터는 2024년부터 2053년까지 30년간 진행하는 ‘학생중단조사사업(SNUPY)’의 1차 결과로 ‘신입생의 대학생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학년도 신입생 패널 494명을 포함해 총 1,500명의 서울대 학생(재학생 1,004명, 신입생 4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입생 패널은 75개 학과(2024학번 소속 학과의 87%) 학생들로

구성돼 대표성을 갖췄다.

이 조사는 신입생의 대학 적응, 학업 태도, 진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생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의 52.9%는 입학 전부터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석사 학위를희망하는 학생은 18.2%, 박사 학위를원하는 학생은 34.7%로 조사됐다.

신입생들은 주중 평균 4.98일을 등교하며 하루 평균 7시간 16분, 주당 36시간을 캠퍼스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 계획에서는 민간기업 취업(22.6%), 대학원 진학(21.8%), 공기업 취업(10.4%), 창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관심사(31.2%), 잘하는 것(21.6%), 연봉(18.3%)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SNU공헌단 동문단원에 응모하세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는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함께하는 ‘2025 SNU공헌단’에 참여할 동문단원을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사회공헌활동에 함께 해주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 |
|--|--|
| <p>네팔 SNU공헌단</p> <p>1)주요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나눔 - 전교생 대상 신체 발달 측정 및 면담 진행 - 전교생 대상 보건위생교육 -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의료 교육 <p>2)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신체 발달 측정 및 보건·위생 교육 활동 기획 및 진행 ●의료 세미나 기획 및 진행 ●학생단원이 주도하는 예체능 교육, 체육 대회·문화나눔 지원 및 보조 <p>3)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견 : 7.25(금) ~ 7.31(목) ●준비 : 오리엔테이션(5.20), | <p>중간점검회의 (7.1), 최종점검회의(7.11), 공통교육 및 발대식(5.24 / 7.9)</p> <p>※기타 단원 간 일정 조율을 통한 수시 회의 및 준비 활동</p> <p>4)모집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동문(총동창회비 납부자) 중 보건 직종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 ●동문단원 필수 파견(7.25~7.31) 및 준비 일정(5회)에 참여 가능한 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 <p>5)모집 인원: 6명</p> <p>6)참가비 : 30만원</p> <p>7)지원서 접수 : 5월 13일(화) 오후 6시 마감</p> |
|--|--|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뉴욕 - 조상근 (법대 69)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골드이사 (\$10,000이상)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김보연 (간호대 63)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중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동영 (사대 60)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시카고 - 조규승 (문리 72)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북가주 - 강재호 (상대 57)
북가주 - 박순희 (의대 60)
북가주 - 남광순 (음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워싱턴DC - 배성호 (의대 65)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익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웅 (사대 73)
곽용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자성 (의대 79)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나용화 (생과대 79)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경자 (사대 60)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故김중률 (사대 51)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오용호 (의대 66)
윤인숙 (간호대 63)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형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조대일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취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박종성 (법대 53)
박진영 (공대 66)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황동하 (의대 65)

시카고

故이윤모 (농대 57)
강영국 (수의대 67)
소진문 (치대 58)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202,303
(12/31/24 까지)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유현주 (문리 65)
진성호 (공대 64)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영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故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1,2차 회기 모두 내신 동문님은 명단에 Bold로 바꿉니다

남가주

- 강경수 (법 58)
- 강동순 (법 59)
- 강윤희 (간 46)
- 강재호 (간 81)
- 강창만 (의 58)
- 강춘자 (간 69)
- 강호석 (상 81)
- 고남규 (의 68)
- 고석규 (치 65)
- 권기상 (대 72)
- 권병성 (문 64)
- 김경 (문 63)
- 김경수 (사 58)
- 김경자 (미 60)
- 김진진 (문 62)
- 김동석 (음 64)
- 김영배 (미 61)
- 김갑균 (공 60)
- 김경수 (치 54)
- 김경욱 (미 61)
- 김경자 (미 60)
- 김광은 (음 56)
- 김기형 (상 75)
- 김난영 (공 53)
- 김중산 (법 59)
- 김명숙 (농 58)
- 김명자 (간 60)
- 김명희 (간 83)
- 김문엽 (농 83)
- 김범수 (공 61)
- 김병연 (공 68)
- 김병완 (공 58)
- 김상찬 (문 65)
- 김석홍 (법 59)
- 김성호 (법 64)
- 김성환 (의 65)
- 김수향 (간 68)
- 김순달 (법 57)
- 김순자 (치 57)
- 김영덕 (법 58)
- 김목경 (상 60)
- 김용주 (간 69)
- 김용채 (문 61)
- 김원탁 (공 65)
- 김일영 (의 65)
- 김지성 (의 79)
- 김재영 (농 62)
- 김정애 (간 69)
- 김종호 (농 59)
- 김종표 (법 58)
- 김종표 (법 59)
- 김준일 (공 62)
- 김창환 (공 77)
- 김태환 (의 58)
- 김태환 (문 78)
- 김태윤 (법 53)
- 김학철 (의 55)
- 김해숙 (미 68)
- 김홍목 (문 60)
- 김희창 (공 64)
- 니두선 (의 66)
- 니승욱 (문 59)
- 니용화 (상 79)
- 노명호 (공 61)
- 노진걸 (사 70)
- 문경호 (문 59)
- 문병길 (문 61)
- 마동일 (의 57)
- 민일기 (의 69)
- 박영근 (상 63)
- 박민식 (수 65)
- 박부강 (사 64)
- 박상원 (대 20)
- 박원준 (공 53)
- 박용 (문 89)
- 박우선 (공 57)
- 박은숙 (미 62)
- 박은희 (미 68)
- 박인수 (농 64)
- 박인창 (농 65)
- 박일우 (의 70)
- 박입하 (치 56)
- 박자경 (상 60)
- 박종수 (수 58)
- 박찬용 (공 58)
- 박찬호 (공 63)
- 박한영 (치)
- 박해란 (미 70)
- 박해국 (간 69)
- 박호현 (의 52)
- 박흥근 (공 64)
- 박희자 (음 68)
- 방명진 (공 73)
- 배동환 (공 65)
- 백옥자 (음 71)
- 백혜란 (미 70)
- 벤지민 (문 53)
- 서동영 (사 60)
- 서명희 (농 67)
- 서세진 (음 62)
- 서치원 (공 69)
- 선우원근 (공 66)
- 성낙호 (치 63)
- 성주경 (상 68)
- 손갑수 (의 55)
- 손기홍 (의 55)
- 손희식 (공 81)
- 송명국 (문 81)
- 송대진 (문 79)

- 신건호 (법 63)
- 신동국 (수 76)
- 신영찬 (미 62)
- 신정연 (미 61)
- 양승문 (공 65)
- 양승조 (음 70)
- 양은석 (음 70)
- 양태준 (상 56)
- 오길평 (치 61)
- 오선중 (의 63)
- 오찬수 (약 57)
- 故 오형원 (의 53)
- 우춘식 (상 61)
- 원종민 (약 57)
- 유종민 (공 64)
- 유덕영 (공 64)
- 유영자 (음 63)
- 유이중 (농 74)
- 유석환 (치 59)
- 육태식 (의 61)
- 윤경민 (법 55)
- 윤영돈 (법 59)
- 윤석철 (상 60)
- 윤희성 (치 65)
- 이강홍 (치 65)
- 이건일 (의 62)
- 이건희 (인 83)
- 이기준 (간 54)
- 이명숙 (농 58)
- 이방기 (농 59)
- 이법식 (공 61)
- 이상우 (의 56)
- 이서희 (법 70)
- 이서숙 (공 56)
- 이성자 (간 76)
- 이소희 (의 61)
- 이영수 (상 60)
- 이영일 (문 53)
- 이영민 (간 70)
- 이영환 (공 64)
- 이원택 (의 65)
- 이원익 (의 73)
- 이익삼 (사 58)
- 이강길 (치 63)
- 이재권 (법 56)
- 이정근 (사 60)
- 이정남 (공 63)
- 이정화 (공 52)
- 이종묘 (간 69)
- 이준호 (상 65)
- 故 이종희 (공 53)
- 이진영 (의 65)
- 이진우 (치 72)
- 이창우 (공 54)
- 이창신 (법 57)
- 이창광 (상 61)
- 이재진 (문 55)
- 이태영 (법 60)
- 이해영 (공 56)
- 이호 (음 92)
- 임동규 (미 57)
- 임동호 (약 55)
- 임문빈 (상 58)
- 임시중 (공 50)
- 장기열 (치 55)
- 장기창 (공 56)
- 장대욱 (음 57)
- 장동석 (문 66)
- 장문섭 (공 69)
- 장병희 (인 86)
- 장소현 (미 65)
- 장우오 (약 57)
- 정원경 (미 73)
- 정영준 (사 54)
- 장인숙 (간 70)
- 장정호 (미 64)
- 장춘호 (공 56)
- 전경배 (의 69)
- 전낙관 (사 60)
- 전범수 (농 71)
- 전상욱 (사 52)
- 전원일 (의 77)
- 정균희 (의 64)
- 정동주 (상 72)
- 정명자 (사 56)
- 정예현 (상 63)
- 정연준 (상 63)
- 정인환 (법 54)
- 정재형 (약)
- 정철용 (의 61)
- 정현진 (간 68)
- 정형민 (문 71)
- 정혜령 (간 72)
- 정황 (공 64)
- 제영혜 (상 71)
- 조경애 (음 64)
- 조동철 (사 68)
- 조선주 (간 69)
- 조성오 (약 57)
- 조재국 (농 67)
- 주선희 (문 66)
- 주정래 (상 65)
- 조종자 (간 61)
- 조태목 (사 60)
- 주정래 (상 65)
- 주훈 (음 69)
- 차승철 (법 54)
- 차중환 (사 54)
- 채규환 (법 69)
- 천동우 (공 63)

- 천원희 (가 71)
 - 최복철 (공 70)
 - 최영구 (상 61)
 - 최영준 (미 69)
 - 최영지 (미 62)
 - 최인숙 (사 67)
 - 임동규 (미 57)
 - 한귀희 (미 68)
 - 한동수 (의 60)
 - 한서동 (의 61)
 - 한성구 (상 53)
 - 한원민 (의 59)
 - 한의일 (공 62)
 - 한정현 (치 55)
 - 한홍택 (공 60)
 - 함승욱 (문 73)
 - 현기우 (문 64)
 - 홍동식 (법 64)
 - 홍선선 (의 72)
 - 홍선례 (음 70)
 - 홍선일 (공 71)
 - 홍수영 (의 59)
 - 황건홍 (공 55)
 - 황만익 (사 59)
 - 황현상 (의 55)
- ### 뉴욕
- Ai Ja Lee
 - 고순정 (간 69)
 - 고재우 (음 57)
 - 계동희 (치 67)
 - 곽선선 (공 61)
 - 김상진 (의 53)
 - 고순정 (간 69)
 - 고재우 (음 57)
 - 고재자 (음 67)
 - 권문국 (의 61)
 - 권영대 (공 69)
 - 권영덕 (의 58)
 - 김영천 (약 72)
 - 김경일 (치 61)
 - 김경현 (미 57)
 - 김문경 (약 61)
 - 김복영 (간 69)
 - 김승호 (공 71)
 - 김우영 (상 60)
 - 김옥현 (의 59)
 - 김영호 (문 75)
 - 김영용 (치 55)
 - 김영진 (문 50)
 - 김영철 (의 55)
 - 김영희 (법 80)
 - 김용연 (문 63)
 - 김재수 (약 58)
 - 김진희 (약 59)
 - 김우동 (사 58)
 - 김형범 (문 57)
 - 박영철 (농 64)
 - 박종진 (의 56)
 - 박종승 (의 56)
 - 송미자 (농 62)
 - 오태우 (간 59)
 - 윤상태 (수 62)
 - 윤영자 (미 60)
 - 이강원 (공 66)
 - 이규진 (약 60)
 - 이금하 (문 69)
 - 이은주 (음 73)
 - 이인인 (공 68)
 - 임영호 (공 72)
 - 장승복 (음 57)
 - 정선주 (간 68)
 - 정정욱 (의 60)
 - 故 주창준 (의 50)
 - 최선인 (문 69)
 - 최진민 (공 71)
 - 최진희 (의 61)
 - 현건섭 (공 55)
- ### 뉴저지
- 김영애 (사 56)
- ### 네바다
- 故 정상진 (상 59)
 - 김상수 (상 67)
 - 김영중 (치 66)
 - 김용재 (의 60)
 - 김택수 (의 57)
 - 이학은 (약 57)
- ### 달라스
- 최희기 (공 61)
- ### 룩키마운틴스
- 이희삼 (문 68)
- ### 미네소타
- 김권식 (공 61)
 - 김성기 (공 88)
 - 민홍기 (공 88)
 - 박현아 (공 88)
 - 송정원 (문 53)
 - 윤정식 (농 86)
 - 이창재 (문 56)
 - 주한수 (수 62)
 - 황효숙 (사 65)

- 고선희 (문 63)
 - 김국화 (공 56)
 - 김영호 (약)
 - 김우신 (의 60)
 - 김정화 (음 56)
 - 김재석 (의 61)
 - 남성희 (의 56)
 - 민영기 (공 65)
 - 박용화 (의 58)
 - 오동환 (의 65)
 - 오혁주 (사 88)
 - 이성길 (의 65)
 - 장병진 (공 61)
 - 이동근 (공 64)
 - 주명수 (간 64)
 - 최병두 (의 53)
 - 하계현 (공 64)
- ### 북가주
- 강재호 (상 57)
 - 김교선 (문 72)
 - 김성철 (공 82)
 - 김용길 (자 77)
 - 김정복 (사 55)
 - 김정희 (법 56)
 - 김현왕 (공 64)
 - 남광순 (공 64)
 - 민병권 (공 65)
 - 박서규 (법 56)
 - 박성우 (문 59)
 - 박영훈 (공 72)
 - 박진영 (공 66)
 - 송영훈 (상 57)
 - 신규영 (공 64)
 - 안호삼 (문 58)
 - 윤성희 (사 58)
 - 위창호 (의 67)
 - 이관모 (공 55)
 - 이성환 (공 65)
 - 이성형 (공 57)
 - 이정우 (문 72)
 - 이정남 (공 65)
 - 이창현 (공 56)
 - 이흥기 (공 62)
 - 임승배 (공 66)
 - 임정란 (음 76)
 - 전병련 (공 54)
 - 정지선 (상 58)
 - 정춘임 (간 67)
 - 정한규 (의 63)
 - 조태우 (사 60)
 - 최경선 (농 65)
 - 한상봉 (수 67)
 - 홍병의 (공 68)
 - 황동하 (의 65)
- ### 샌디에고
- 고경하 (공)
 - 남정우 (사 56)
 - 이문상 (공 62)
 - 오계환 (공 64)
 - 유현주 (문 65)
 - 윤진수 (의 57)
 - 이문성 (공 62)
 - 이면기 (공 64)
 - 이영신 (간 77)
 - 임준수 (의 57)
 - 진성호 (공 64)
- ### 시카고
- Ja H. Song
 - 강영국 (수 67)
 - 구경희 (의 59)
 - 김길준 (의 59)
 - 김동준 (공 66)
 - 김동호 (공 58)
 - 김성일 (공 65)
 - 김승주 (간 69)
 - 김영우 (문 66)
 - 김영환 (공 71)
 - 김윤하 (공 66)
 - 김윤하 (문 69)
 - 김호범 (상 69)
 - 김현주 (문 61)
 - 노영일 (의 62)
 - 민영기 (공 65)
 - 박동수 (상 58)
 - 박우수 (문 58)
 - 박정일 (의 61)
 - 박종희 (의 69)
 - 박정욱 (공 56)
 - 백운기 (문 56)
 - 서상현 (의 65)
 - 소진문 (치 58)

- 송재현 (의 45)
 - 신석균 (문 54)
 - 안영학 (문 57)
 - 안신훈 (농 61)
 - 연경자 (약 65)
 - 유기정 (간 72)
 - 육길원 (사 59)
 - 윤경순 (사 61)
 - 윤덕상 (치 62)
 - 윤봉수 (간 69)
 - 이경미 (미 69)
 - 이건정 (공 69)
 - 이덕수 (문 58)
 - 이동근 (공 75)
 - 이소희 (간 68)
 - 이승자 (사 60)
 - 이시영 (상 45)
 - 이유락 (공 48)
 - 이우성 (약 51)
 - 故 이윤모 (농 57)
 - 이준수 (공 76)
 - 이종일 (의 65)
 - 장윤일 (공 60)
 - 전현학 (공 69)
 - 전현일 (농 62)
 - 조대현 (공 67)
 - 조중환 (의 63)
 - 최대환 (의 59)
 - 최혜수 (의 53)
 - 최희수 (문 67)
 - 한의일 (공 62)
 - 한재은 (의 59)
 - 홍건 (의 64)
 - 홍성일 (약 57)
 - 황소나 (문 65)
- ### 아리조나
- 진명규 (공 70)
- ### 오레곤
- 김영자 (간 56)
 - 박희진 (농 78)
 - 최은성 (의 55)
 - 김현희 (간 59)
 - 남세현 (공 67)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성성모 (사 67)
 - 소용덕 (의 57)
- ### 오하이오
- 명인재 (치 75)
 - 박훈 (공 74)
 - 故 이영옥 (의 57)
 - 유덕영 (공 57)
- ### 워싱턴 DC
- 김길중 (약 69)
 - 고의걸 (의 55)
 - 곽영수 (문 65)
 - 권기현 (사 53)
 - 권철수 (의 68)
 - 권오근 (상 58)
 - 김기봉 (공 63)
 - 김기환 (공 67)
 - 김내도 (공 62)
 - 김부근 (의 58)
 - 김영선 (문 58)
 - 김영호 (공 64)
 - 김영환 (치 88)
 - 김혜식 (공 59)
 - 김희주 (의 62)
 - 남윤수 (사 57)
 - 남욱현 (상 84)
 - 남춘일 (사 69)
 - 박민영 (의 69)
 - 박일영 (문 59)
 - 박찬모 (공 54)
 - 박홍우 (문 61)
 - 배성호 (의 65)
 - 백순 (법 58)
 - 백용현 (공 64)
 - 서윤석 (의 62)
 - 석준범 (문 61)
 - 신경은 (문 65)
 - 오인환 (문 63)
 - 양용관 (수 62)
 - 우재형 (상 54)
 - 유달 (의 67)
 - 유영신 (인 74)
 - 유영준 (의 74)
 - 이건현 (수 54)
 - 이규양 (문 62)
 - 이내원 (사 58)
 - 이서구 (문 61)
 - 이선구 (문 65)
 - 이성배 (수 57)
 - 이연주 (치 88)
 - 이영덕 (사 61)
 - 이윤주 (상 63)

- 이재승 (의 55)
 - 이종국 (의 52)
 - 이준영 (치 74)
 - 이진상 (공 57)
 - 이철수 (공 61)
 - 임광록 (간 72)
 - 전희순 (간 76)
 - 정영자 (사 56)
 - 정원자 (농 62)
 - 정평희 (공 71)
 - 조병선 (의 65)
 - 천권희 (간)
 - 최경수 (문 54)
 - 최대영 (의 73)
 - 최재귀 (미 63)
 - 한의생 (수 60)
 - 한광수 (의 57)
 - 홍영석 (공 58)
- ### 워싱턴주
- 권영희 (약 66)
 - 김교선 (법 54)
 - 김인배 (수 59)
 - 김재훈 (공 72)
 - 류성일 (공 72)
 - 박진수 (의 57)
 - 변중해 (법 58)
 - 안승적 (농 59)
 - 윤성진 (문 64)
 - 윤태근 (상 69)
 - 이길숙 (상 57)
 - 이명자 (간 74)
 - 이연주 (치 88)
 - 이희배 (의 55)
 - 정영자 (사 56)
 - 최준한 (농 58)
- ### 유타
- 김인기 (문 57)
- ### 조지아
- 김기중 (공 61)
 - 김영서 (상 54)
 - 김중우 (수 73)
 - 김현희 (간 59)
 - 남세현 (공 67)
 - 백낙영 (상 61)
 - 서광모 (공 65)
 - 성성모 (사 67)
 - 소용덕 (의 57)
 - Steve Sung
 - 오경호 (수 60)
 - 윤영돈 (법 59)
 - 은철수
 - 이종석 (의 54)
 - 임수암 (공 62)
 - 임한웅 (공 60)
 - 정선휘 (간 58)
 - 최태순 (공 65)
 - 최종진 (의 63)
 - 한성수 (의 54)
- ### 캐롤라이나
- 이종영 (음 58)
 - 정신호 (치 78)
 - 최화진 (음 85)
- ### 커네티컷
- 라창국 (의 57)
 - 최창승 (의 58)
- ### 테네시
- 권준희 (가 87)
 - 김경덕 (공 75)
 - 서갑식 (공 70)
 - 임효순 (간 71)
- ### 텍사스
- 김장환 (공 81)
 - 유황 (농 56)
 - 윤영주 (문 60)
 - 조진태 (문 57)
 - 전양공 (의 63)
 - 전중희 (공 56)
 - 진기주 (상 60)
 - 최희기 (공 61)
 - 황명규 (공 61)
- ### 플로리다
- 김성준 (의 55)
 - 김중권 (의 63)
 - 박창익 (농 64)
 - 안창현 (의 55)
 - 염태근 (의 56)
 - 오석일 (의 64)
 - 원인순 (문 71)
 - 이민우 (의 67)

- 이만택 (의 52)
 - 정의철 (의 55)
 - 하재철 (문 67)
- ### 필라델피아
- 고병은 (문 55)
 - 강준철 (사 59)
 - 김경희 (가 71)
 - 김국간 (치 64)
 - 김규하 (상 63)
 - 김상천 (농 64)
 - 김정현 (공 58)
 - 김현영 (수 58)
 - 손재욱 (가 77)
 - 송성규 (공 50)
 - 서의원 (공 66)
 - 서준민 (공 64)
 - 성기호 (상 59)
 - 성정호 (약 59)
 - 신선자 (사 60)
 - 심영석 (공 76)
 - 안세현 (의 62)
 - 엄종렬 (미 61)
 - 오진석 (치 56)
 - 유영걸 (의 70)
 - 윤경숙 (문 59)
 - 윤정나 (음 57)
 - 이규호 (공 56)
 - 이문호 (공 53)
 - 이성숙 (상 74)
 - 이수경 (자 81)
 - 이지춘 (미 57)
 - 이희일 (상 70)
 - 장학량 (약 56)
 - 조화연 (음 64)
 - 전우식 (수 61)
 - 전방남 (상 73)
 - 정덕순 (상 63)
 - 정학량 (약 56)
 - 정흥택 (상 61)
 - 조정현 (수 58)
 - 주기목 (수 68)
 - 지홍민 (수 61)
 - 최종무 (상 63)
 - 최현태 (문 62)
 - 한동휘 (문 57)
 - 한수웅 (의 55)
 - 한우오 (보 70)
- ### 하와이
- 김달욱 (사 55)
 - 김용수 (농 75)
 - 김윤균 (공 63)
 - 안은식 (문 55)
 - 이재현 (수 61)
 - 최경윤 (사 51)
 - 하인환 (공 56)
- ### 하트랜드
- 김경숙 (가 70)
 - 김재경 (공 64)
 - 김태찬 (문 80)
 - 김시근 (공 72)
 - 배영영 (사 68)
 - 오명순 (상 69)
 - 이광자 (간 63)
 - 이상강 (의 70)
 - 이주현 (미 92)
 - 이치현 (약 77)
 - 임수연 (음 91)
 - 정민재 (농 71)
 - 조원지 (문 63)
 - 호민선 (상 59)
- ### 휴스턴
- 김영일 (의 55)
 - 박석규 (간 59)
 - 박유미 (약 62)
 - 박태우 (공 64)
 - 이길영 (문 59)
 - 이윤성 (수 81)
 - 이은애 (음 81)
 - 이학호 (수 59)
 - 진기주 (상 60)
 - 최관일 (공 54)
 - 최성호 (문 58)
 - 최우현 (의 53)
- ### 룩키마운틴스
- 송유준 (의 64)
 - 전남인 (사 72)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5.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병연 (공 68)	500
김성환 (의 65)	300
노진걸 (사 70)	2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15,000
박한영 (자)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용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법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이재진 (문 55)	200
임낙균 (약 64)	21,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만익 (사 59)	200
황현상 (의 55)	100
H & Y Lee	1,000
뉴욕	
곽선석 (공 61)	400
신응남 (농 70)	700
김광현 (미 57)	200
김보영 (간 69)	50
김해일 (의 52)	100
리준무 (음 65)	4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2,000
주창춘 (의)	400
박중승 (의 56)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5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4,000
백순 (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강영국 (수 67)	200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200
------------	-----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황효숙 (사 65)	2,000

조지아

이종석 (의 54)	200
성성모 (사 67)	200
최정진 (의 63)	500
한성수 (의 54)	200

커네티컷

최창승 (의 58)	200
------------	-----

테네시

김경희 (공 75)	200
------------	-----

텍사스

황명규 (공 61)	400
------------	-----

필라델피아

(고)전희근 (의 55)	2,000
최창승 (의 52)	500
서종민 (공 64)	200
손재욱 (가 77)	500
이순희 (사)	3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400
오석일 (의 64)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0
------------	---------

휴스턴

진기주 (상 60)	2,000
------------	-------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	-------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 81)	48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720

하기환 (공 66)	480
김경무 (공 69)	480
김원탁 (공 65)	480
김일영 (의 65)	480
김자성 (의 79)	240
서동영 (사 60)	480
신동국 (수 76)	48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48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종모 (간 69)	480
이태영 (법 60)	480
최우식 (약 66)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김치갑 (의 73)	480
박종호 (의 79)	240
신응남 (농 70)	480
석창호 (의 66)	240
이전구 (농 60)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480
------------	-----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	-----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홍성선 (약 72)	100
이건일 (의 62)	1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4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100
------------	-----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강길중 (약 69)	500

테네시

권준희 (가 87)	150
------------	-----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	-----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SNUAA Scholar Program

(본국)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 (상 65) 10,000

남가주	
노명호 (공 61)	10,000

미시간

고광국 (공 54)/	200,000
고국화 (공 56)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	--------

시카고

이용락 (공 48)	3,000
------------	-------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김자성 (의 79)	1,5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24,000

박수경 (생 84) 6,0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경희 (인 83) 300

이병준 (상 55) 3,000

하기환 (공 66) 2,500

홍준현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이전구 (농 60)	3,0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	-----

워싱턴 DC

권기현 (사 53)	300
권철수 (의 68)	100
최재귀 (미 63)	200
한광수 (의 57)	3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	-----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	-----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	-----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200

미네소타

황효숙 (사 65)	500
------------	-----

시카고

한재은 (의 59)	300
------------	-----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	-----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	-----

나눔기금(Charity Fund)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300

펜실베이니아

신의석 (공 53)	5,000
------------	-------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	-----

관악연대 후원금

--	--

지부분담금

(24-25 년 2차회기)	
남가주	
채규환 (법)	3,000
미네소타	
문희인 (공 88)	550
미시간	
이광진 (공 81)	300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1,000
워싱턴 DC	
남욱현 (상 84)	3,000
워싱턴주	
이정관 (농 83)	800
휴스턴	
김정환 (공 80)	550
하트랜드	
이주현 (미 92)	55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100 (2024/7~2025/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2024/6월, 1년/1차) <input type="checkbox"/> \$240 (2024/7월~2025/6월, 1년/2차)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디자인 추가시, 1년)	<input type="checkbox"/> SNUAA Scholars Program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관악연대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900-1000	
4184 E. Conant St., Long Beach, CA 90808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모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Law Offices E. PETER SHIN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F: 718-463-6789	
35-15 159th Street, Flushing, New York 11358	
petershinesq@gmail.com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120 Sylvan Ave #303,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 Seoul Korea |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t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H1C(Health 1 Care) / 김창석내과

김창석 (의대 73)
T: 770-497-4188
10710 Medlock Bridge Rd, Ste 200, Johns Creek, GA 30097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텍사스

UNIFAITH Co
최성호 (문리대 58)
T: 281-269-6176
4260 Asteroid Ct, Houston Texas 77068
unifaith@hotmail.com

뉴잉글랜드

URI
이강원 (공대 66)
T: 401-874-2695
2 E. Alumni Ave. Kingston, RI 02881
leekw@uri.edu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O이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시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영일(문) 이채진(문) 박중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지),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 나용화(생)/위원: 최경석(사), 박문수(공)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백옥자(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택택(공)
위원: 고 김영구(공), 신응남(농), 이명자(간)
이준수(공), 임준원(공), 최인숙(약)
최화진(음), 김광수(자), 문성인(공)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나눔위원회

위원장: 이성숙(가)
위원: 정태광(공), 유미영(음)
감사: 박평일(농)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5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차기 회장 **양수진**(간호대 80) T: (714)335-2148
sujiyang2011@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송태영(자연대 84)
T: (778)866-8312
chris.van.bc@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문성인(공대 88)
T: (952) 250-3500
msungi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p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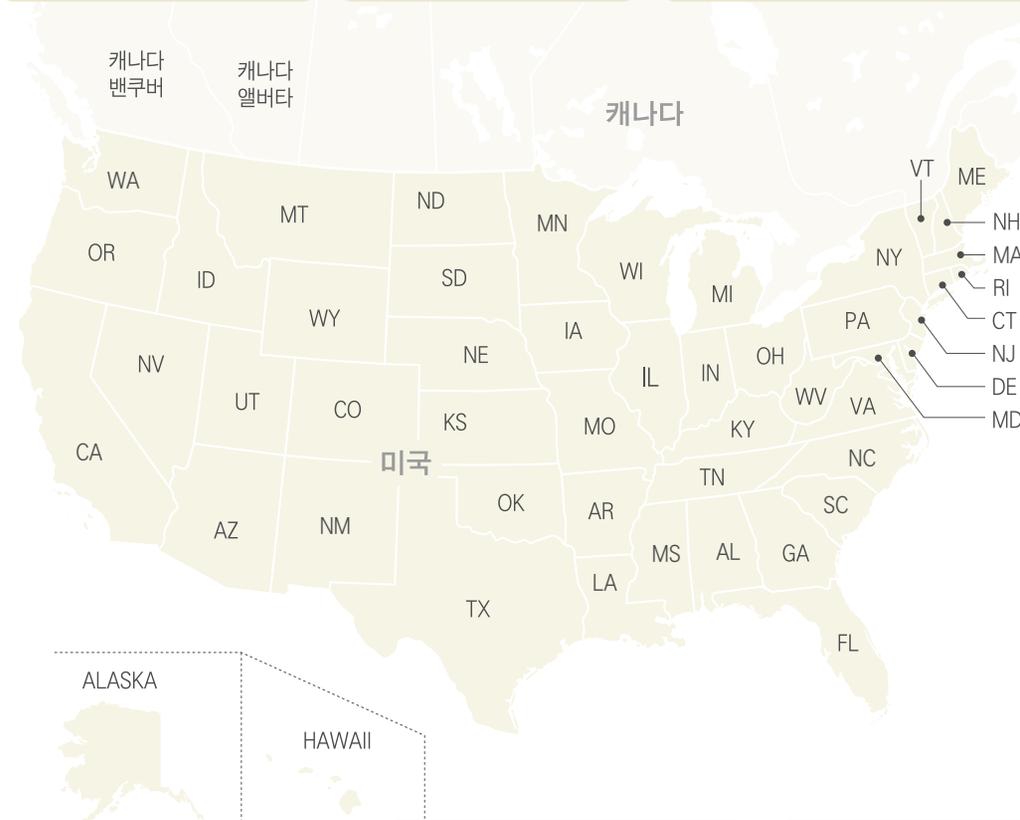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차기 회장 **이동균**(공대 75) T: (847)644-4807
dlee1917@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박상호(치대 80) T: (516)776-0449
nomacast@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이정관(농대 83) T: (425)998-4150
jklee234@yahoo.com

뉴욕 NY/NJ (July~Jun)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남옥현(경영대 84)
T: (703)898-6429
minamusa@yahoo.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최화진(음대 85)
T: (828)242-7150
hwajinkimdma@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 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주현(미대 92)
T: (913)220-3021
June.cho@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m@alum.utk.edu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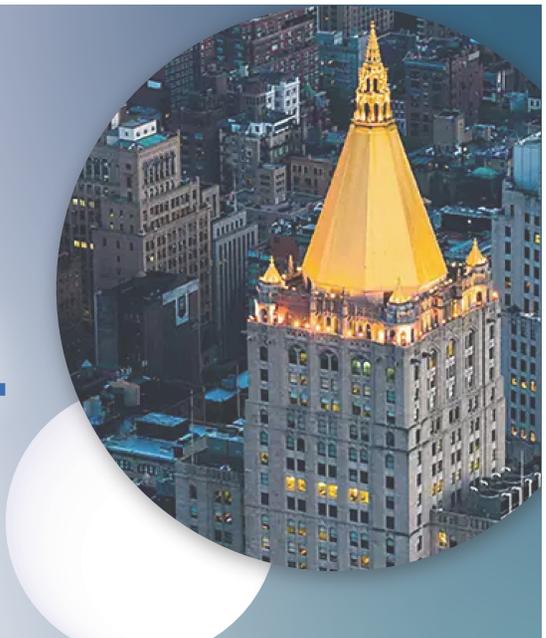
- ✓ 모든 종류의 통증 치료, 주사요법, 척추주사
- ✓ 근육 신경 정밀검사(EMG/NCV'S test)
- ✓ 교통사고 및 작업 중 손상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통증 치료
- ✓ 운동 손상 치료 | 침술 치료 | 프롤로테라피 | 혈소판 주사
- ✓ 각종 보험 청구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정세근(자연대 82)

C&N 종합보험 | 뉴욕라이프



Office. 703-663-8400

Cell. 703-785-8467

11325 Random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소아 치과



치아교정



치아이식



각종 잇몸 치료



Michael Hwang M.D.

황준오 교정 및 일반치과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겨울은 듀오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 NY 212-915-7115